이천이십육년 | 가을호(통권 29호)
www.gyeoremal.or.kr

겨레말

| 겨레말 초대석 | 안병우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민족 모순을 해결하는 일

| 기획특집 | 《겨레말큰사전》 종이사전 출판의 의미

인공지능(AI) 시대, 종이사전의 자리

남녘말 북녘말

우리는 같은 새를 보고 있다



목차

겨레말

이천이십육년 | 가을호(통권 29호)









02 겨레의 창
주시경 선생 나신 150돌을 맞이하여 · 권재일

06 겨레말 초대석
안병우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민족 모순을 해결하는 일

12 심상
바다와 가로등 · 강건모

기획특집 | **《겨레말큰사전》 종이사전 출판의 의미**

16 **인공지능(AI) 시대, 종이사전의 자리**

18 **칼럼 1** · 김양진
사전을 만든다는 것, 언어를 남긴다는 것

22 **칼럼 2** · 장경식
사전은 힘이 세다

26 **인터뷰** · 윤구병 도서출판 보리 대표
《보리 국어사전》이 지키고자 한 말들

일러두기 | ① 본문에서 중복적으로 쓰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사업회', 남북공동편찬회의는 '공동회의'로 통일한다.
② 본지에 게재된 필자의 견해는 사업회 입장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남북 공동의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여 민족어 보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은 민족의 언어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최초로 공동 편찬하는 우리말 사전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사업회 홈페이지(gyeoremal.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겨레말 탐구생활

30 남녘말 북녘말
우리는 같은 새를 보고 있다 · 최현아

34 뜻풀이 깁고 더하기
후사경(後寫鏡)과 백미러(back mirror) · 김강출

38 우리말 보물찾기
방언, 우리말의 풍요로움을 더하다 · 위평량

42 이 계절의 겨레말
'사과배'를 다시 바라보다 · 한성우

46 겨레말 소식

48 겨레말 낱말 풀이



작고 다정한 불빛

사람에게는 세월이 가도 내내 그 자신에게 남아 있는 빛이 하나쯤 있는 것 같다. 어떤 어둠이 덮쳐 와도 끝내 꺼지지 않고, 생의 가장 캄캄한 밤을 묵묵히 지켜주는 작고 다정한 불빛 말이다. 우리는 필시 그 빛 하나에 기대어 저마다의 막막한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본문 15쪽)

글·사진 제공: 강건모

발행인 **안병우** 편집인 **모순영** 책임편집 **윤석정** 편집 **김미경** 교정 **홍서현** 펴낸날 **2026년 10월 1일**
펴낸곳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9층(공덕동)**
홈페이지 **http://www.gyeoremal.or.kr** 전자우편 **gyeoremal@gyeoremal.or.kr** 디자인 **해든디앤피** 인쇄 **(주)태광P&D**



↑ 1943년 이종우 화백이 그린 주시경 선생 초상화

주시경 선생 나신 150돌을 맞이하여

글 **권재일** 재단법인 한글학회 이사장, 주시경 선생 탄생 150돌 기념사업 조직위원장

"그 나라 말과 그 나라 글은 그 나라가 홀로섬의 특별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시경 선생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우리말과 우리글을 가꾸고 지키는 데에 온 힘을 바친 나라의 큰 스승이십니다. 주시경 선생은 1876년 12월 22일(음력 11월 7일) 황해도 봉산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하니 올해 2026년은 선생이 태어나신 지 150돌이 됩니다.

주시경 선생은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어를 연구한 언어학자였으며, 또한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꿋꿋하게 지킨 국어 사랑의 실천가였습니다. 나라의 힘과 겨레 정신의 근본 바탕이 되는 말과 글을 바로잡기 위해 말소리와 문법을 연구하였습니다.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선생의 언어학 이론은 오늘날 우리말 연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선생의 국어학에 대한 주요 저서에는 《국어문전음학》(1908년), 《국어문법》(1910년), 《말의 소리》(1914년)가 있습니다. 이들 책에 담긴 선생의 국어에 대한 연구와 우리 말글 사랑의 실천 정신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 주시경 선생의 대표 저서, 『국어문법』의 육필 원고

민족 정신의 뿌리, 우리말을 향한 평생의 신념

주시경 선생의 국어 연구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잇고 가꾸는 데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말을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의 뿌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학문의 바탕이 되었으며, 평생을 일관되게 지닌 태도였습니다. 청년 시절 우리말과 훈민정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주시경 선생은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일에 헐버트 박사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주시경 선생은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이 창간되자 국문판 조필(助筆)로 발탁되어 편집과 제작을 맡았으며, 독립신문사 안에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하고 국어문법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더욱이 1908년 8월 31일 주시경 선생은 지금의 한글학회로 이어온 국어연구학회를 창립하여 겨레 말글의 힘을 단단히 뭉쳤습니다. 주시경 선생의 업적은 학문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어 강습을 이끈 국어교육자로서의 업적, 맞춤법 정리와 같은 국어정책가로서의 업적 또한 큽니다. 국어 순화 운동도 주시경 선생에서 비롯되었으며, 토박이말을 살려 쓰고, 글쓰기에서 한글 전용이라는 새로운 운동도 실천하였습니다. 우리 글자 이름을 '한글'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주시경 선생 나신 150돌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 속에 문화가 우뚝 솟게 된 데에는 한글이 이바지한 바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는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일깨워 힘차게 되살려낸 주시경 선생을 한국인의 삶을 널리 이롭게 한 큰 스승으로 높이 우러러 받들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 나신 150돌을 맞이한 올해 한글학회는 여러 뜻깊은 일을 펼칩니다.

2023년 한글학회는 주시경 선생 나신 150돌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한글학회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2년 동안 다달이 소식지 《한글새소식》을 통해 선생의 말·글·나라 사랑 정신을 온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선생의 정신을 새롭게 이해하길 기대합니다.



↑ 서울시 종로구 주시경마당에 있는 부조상

주시경 선생을 기리기 위한 가장 핵심 행사는 학술대회라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1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학술대회는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여 선생의 학문과 국어 실천 운동에 대한 업적을 토론합니다. 박영신 교수는 기조 발표에서 어둠을 뚫고 한글 시대를 연 주시경 선생의 학문 업적과 사상을 살핍니다. 영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참여하는 학자들은 외국학자들의 시각에서 주시경 선생의 한국어 연구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시경 선생 이후 20세기 초기에 우리말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통해 주시경 선생의 업적을 되살펴 우리가 앞으로 계승해 나아가야 할 연구의 방법과 대상을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편 올해는 한글날 제정 100돌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가갸날/한글날 제정의 한글문화사적인 의의를 아울러 조명합니다. '한글'이란 이름을 처음으로 정착시킨 것이 바로 주시경 선생이기 때문에 더욱 뜻이 깊습니다.



↑ 주시경 탄생 150돌 기념우표

주시경 선생 태어나신 150돌을 기념하여 정부의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기념우표를 발행합니다. 주시경 선생의 저서 『말의 소리』를 배경으로 주시경 선생이 책보자기를 들고 국어 강습에 임하는 모습을 담은 우표를 다가오는 한글날에 발행합니다. 기념으로 온 국민들이 한 장씩 간직한다면 이 또한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학술대회 기간에 기념 음악 공연도 준비하였으며, 주시경 선생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는 행사도 준비하였습니다. 서울 종로구 당주동 사시던 터를 시작으로 하여 주시경마당, 배재학당, 상동교회, 그리고 국어연구학회를 창립한 서울 서대문구의 봉원사를 함께 둘러보는 행사입니다.

《말모이》 원고 베껴 쓰기

또 한 가지 정말 뜻깊은 일을 펼칩니다. 바로 《말모이》 원고 베껴 쓰기 행사입니다. 한글학회가 《말모이》 원고를 간직하고 있는 국립한글박물관과 함께 이 행사를 펼칩니다.



↑ 주시경 선생이 편찬하시던 《말모이》 원고

주시경 선생은 백성 대부분이 문맹자인 상황에서 이들을 계몽하기 위해서는 '법식에 맞게' 글을 읽고 쓰는 데 참조할 문법과 사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말 사전 편찬을 시도하였으니, 바로 《말모이》였습니다.

《말모이》는 1910년대 조선광문회에서 주시경 선생과 뜻을 같이하는 그의 제자 김두봉, 권덕규, 이규영 선생 등의 언어학자가 참여해 편찬한 최초의 현대 우리말 사전의 원고입니다. 그런데 편찬자들이 사망하고 망명하기도 하여 불행히도 출판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말모이》 원고는 1927년 민족계몽단체인 계명구락부에 인계되었다가 이후 조선어연구회로 넘어가 조선어학회의 《조선말큰사전》(한글학회의 《큰사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해 오는 《말모이》 원고는 그 첫째 권으로 보이는, 푸른색 원고지에 붓으로 쓴 원고로 240자 원고지 기준 153쪽 분량입니다.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편찬에 참여하였던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면서 똑같은 모양으로 준비한 원고지와 펜으로 베껴 쓰는 작업입니다. 작업을 다 마친 뒤, 책으로 묶어 기념할 예정입니다.



↑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주시경 선생의 묘소

주시경 선생의 뜻을 《겨레말큰사전》에서 펼치다

울산 출신 최현배 선생과 동래 출신 김두봉 선생은 함께 국어연구학회가 차린 국어 강습소의 제2회 졸업생, 조선어강습원 고등과 수료생으로 주시경 선생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914년 주시경 선생이 돌아가시자 김두봉 선생은 주시경 선생을 이어 말본 연구와 교육에 힘쓰다가 1919년 4월 중국으로 망명했고, 최현배 선생은 일본 유학을 다녀와서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국어 연구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이 두 분을 중심으로 주시경 선생의 학문과 국어 운동 정신은 조선어학회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남북은 분단되었습니다.

남북한은 광복 이후 그 범위나 방법에 차이는 있었지만, 한글 전용이라는 강력한 말글정책을 폈습니다. 한글을 깨쳐 문맹을 없앴습니다. 남한은 문교부 편수국을 책임 맡은 최현배 선생을 중심으로 한 조선어학회 학자들이, 북한은 조선어학회의 간사장을 맡았던 이극로 선생이 말글정책을 펼쳤습니다. 결국 광복 이후 남북한의 말글정책은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학회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고, 또 그 정책이 우리 민족을 문맹으로부터 구하였습니다.

광복 이전 조선어학회가 1933년에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하고, 1936년에 표준말을 사정하여 보급·교육한 결과, 남북한은 표준화된 언어 및 문자 체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단 초기에 남북한은 '미리 마련해 둔' 이러한 표준화된 말과 표기법을 공통으로 가졌기 때문에 말과 글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분단 80년이 지났음에도, 남북한의 말글 체계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고 표기법 원리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은, 《조선말큰사전》 편찬을 통해, [1] 분단 이전 이미 조선어학회가 어휘와 표기법을 표준화했고, [2] 분단 직후 남북의 말글정책을 수립한 학자들이 모두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학회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질성을 바탕에 두었지만, 남북은 분단 80년 동안 크고 작은 언어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사업입니다. 따라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마무리되면, 바로 주시경 선생이 오래전에 품었던 생각, '법식에 맞게' 글을 읽고 쓰는 데에 남북한이 함께 참조할 사전이 다시 한번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주시경 선생 나신 150돌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선생의 고귀한 뜻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재일

재단법인 한글학회 이사장, 주시경 선생 탄생 150돌 기념사업 조직위원장.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명예교수. 국립국어원 원장, 한글학회 회장, 겨레말큰사전 이사 등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로는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문법사』, 『언어학사강의』,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세계언어의 이모저모』, 『말로써 행복을』 등이 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민족 모순을 해결하는 일

지난 7월 6일 사업회에서 안병우 이사장을 만났다. 안 이사장은 두 달 전 이사장에 취임한 후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깊이 공부하면서 사업회와 각별해지는 시간을 보냈다. 그는 취임사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말을 보존하고 가꾸는 것에 엄청난 인위적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의 핵심에 사전 편찬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역사학자이자 기록학자로서 남과 북의 어휘를 모아 사전을 만드는 작업이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는 기록임을 강조했다. 사업회의 법정기한이 만료되는 2028년 4월까지 《겨레말큰사전》 종이사전을 발간하고 《전자 겨레말큰사전》 개통해야 하는 과제 앞에서 그는 취임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끌어안았다. 안병우 이사장을 만나 그간의 행보와 사업회의 전망을 들어봤다.

진행·정리 **윤석정** 기획홍보부 부장
사진 **고형욱** 사진작가





이사장 취임 후 근황이 궁금하다.

지난 5월, 사업회 4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전임 이사장이 2025년 8월에 퇴임해 꽤 긴 시간 공백이 있었다. 사업회가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백을 채우려고 노력하며 지난 두 달을 보냈고, 이제야 겨우 업무의 갈피를 잡았다. 민족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뜻깊은 사업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 책임감이 느껴진다.

교수 재임 시절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초대 위원장, 한국기록학회 회장,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여러 사회 활동을 펼쳤다.

1987년 민주화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흐름에 지식인들도 마땅히 동참해야 했다. 이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한국역사연구회가 탄생했다. 이들 단체에 가입하면서 사회 활동을 시작한 것 같다. 당시 한국역사연구회는 창립 직후부터 북한과의 역사학 교류를 추진하였고, 북한으로부터 교류 제안을 받기도 하였다.

남북 교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북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학문적인 필요 때문이었다. 고려시대 왕실 재정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는데 개성과 왕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하고 쓰려니 갑갑하기 이를 데 없었다. 마침 《한겨레21》에서 새해의 희망을 피력하는 칼럼을 부탁받아,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며 개성 방문 희망을 담았다. 그 칼럼에 김주영 작가가 『화척(禾尺)』을 집필하다가 개성이라는 도시 공간을 묘사하기 어려워 집필을 멈췄던 이야기도 인용했다. 이를 계기로 개경(開京)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얼마 후 한국역사연구회에 개경연구반이 결성되어, 개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개경연구반 활동이 개성 만월대 발굴 조사 사업에 참여한 것과 연결된다.

그런 면이 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의 길이 열렸다. 2001년 3월 《민족21》 창간호가 나왔는데 당시 《민족21》이 방북 취재, 남북공동학술회의를 주관했다. 2004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공동학술회의에서 본인은 일제가 약탈한 문화재 반환 문제를 발표했다. 그때 남북역사학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5월 남측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본인이 부위원장 직책을 맡았다. 이듬해 11월에는 개성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개성 만월대 발굴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역사학자로서 《겨레말큰사전》에서 발견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사장에 취임한 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사전 편찬이나 국어학을 공부하고 있다. 국어와 국사는 개인과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학술적으로 보면 국학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다. 말은 민족 구성원의 중요한 정체성이다.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생활하고 사유하며 창조적 작업을 한다. 그런 사유와 활동의 중심에 우리말이라는 언어의 작용이 있고, 그것들이 쌓여 역사가 된다.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기반 위에서 형성되었는데, 남북이 80년 넘게 갈라져 살아오면서 각기 다른 어문 규범을 제정하여 자모의 순서, 표기법, 맞춤법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생겼다. 더욱이 언어는 생물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할 것이다. 남북이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공동의 사업과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달라진 언어가 방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하면 더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작한 사업이 《겨레말큰사전》 편찬이다. 그러므로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업이다.



공동회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남북 공동 편찬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지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편찬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고, 교류가 중단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남북 관계가 원활했다면 무난히 사전을 완성하였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 그러나 이 사전은 언젠가는 완성되어야 한다. 민족의 정체성과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사업회에 온 뒤로 여러 나라의 사전 편찬 사례를 보았는데, 독일의 《그림 사전》이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게르만 민족의 통합을 위해 1838년에 그림이 시작한 사전 편찬은 그가 사망한 뒤에도 지속되었고, 1871년 그의 염원이었던 통일 독일제국이 성립되면서 좋은 여건을 맞았다. 뒤이은 1, 2차 세계대전, 동서 분단의 비극을 겪으며 사전 편찬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중단하지는 않았다. 개인이 시작한 편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분단 이후에도 동서독에 각기 사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력하며 편찬을 계속하였다. 마침내 1960년에 사전이 완성되었다. 무려 122년 만이다. 그에 비하면 《겨레말큰사전》 편찬 과정은 긴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과 협의해 사전을 완성할 때까지 사업회는 남측에서 만든 사전을 관리하는 한편 학계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웹에서도 누구나 편리하게 사전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전자 겨레말큰사전》 개통을 준비하는 이유이다.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에서 남북 교류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지금의 남북 관계는 매우 엄혹한 상태이다. 대표적인 학술 문화교류 사업인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개성 만월대 발굴 조사도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렇게 공동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내부 역량을 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류의 재개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애썼다. 교류의 대상은 북한이지만, 남한 안에서도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

꽉 막힌 담장을 열기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적 차원, 민간 차원에서도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지금 사업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남측 입장에서는 원고 작성을 완료한 단계이다. 물론 북측과 협의해 수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10년 넘게 협의가 중단됐다. 그런 상황에서 사업회는 북측편찬위원회라면 어떤 의견을 내고 어떻게 작업을 할까 하는 점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본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늘 상대를 염두에 두고 편찬 작업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언젠가 다시 마주 앉을 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교정과 교열 등 세심한 부분까지 빠뜨림 없이 챙겨야 한다.

《겨레말큰사전》이 국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설 방법은?

사실 통일은 다분히 추상화되어 있다. 머릿속에선 통일의 과정이나 통일 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잘 그려지지 않는다. 통일이 민족의 추상적 명제가 된 것이다. 사전 편찬과 관련해 생각해 본다면, 막상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학교에서 국어를 어떻게 가르칠지 궁금하다. 남북의 언어 규범이 달라 그대로 가르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일을 생각한다면 말과 글의 일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도기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도 《겨레말큰사전》 편찬이 중요하다. 물론 사전을 편찬한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은 확실하다. 꼭 통일에 이르지 않더라도 평화적 공존 관계가 정착되면, 여러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상호 연락이나 방문이 가능해진다. 20년 전 여름에 백두산 유적을 탐방하기 위해 삼지연의 베개봉 호텔에 묵은 적이 있다. 밤에는 난방을 해야 할 정도로 추웠다. 끝없이 넓게 펼쳐진 울창한 백두산 숲과 작은 꽃들, 깜깜한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별과 볏짚으로 구운 감자의 맛,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김포에서 삼지연까지 항공기가 운항 되면 여름 피서지로는 그만한 곳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북한에 직접 가볼 수 없지만 《겨레말큰사전》이 북한의 언어와 생활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사업회에서도 사전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겠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 혹은 개인들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장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나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비전공자가 사전 편찬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해방 정국에서 다양하게 표출되던, 새로운 국가와 사회 건설의 이념과 지향이 분단으로 두 동강 나고, 전쟁을 겪으면서 동족은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적이 되었다. 분단은 국토뿐 아니라 우리의 의식도 분단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저해했다. 우리는 한반도 남부에서 고립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역사학은 이 민족 모순을 해결하는 일에 기여해야 하고, 국어학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 사전은 분단의 모순을 온몸으로 안고 태어나는 것이고, 동시에 모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전을 잘 만들고, 그를 통해 여러 곳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동질성과 언어적 유대감이 잘 보존되고 깊어지기를 바란다.

지난 20년간 축적된 사업회의 성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유산으로 남기를 기대하는가.

사업회는 한국 현대사는 물론이고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유산을 생산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독일은 분단 상황에서도 사전 편찬을 멈추지 않고 122년 만에 완성했다. 그러나 우리는 분단 60년이 될 무렵에야 언어의 이질화 현상을 반영하고 일치를 모색하는 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했고, 20년이 지나 '과정본' 사전을 발간하려고 한다. 언어학적으로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겨레말을 수집해 정리한 사전으로, 민족사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담론을 담은 '미래형 사전'으로 기록되리라 본다.

끝으로 《겨레말》 독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사전 편찬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은 미처 몰랐다. 시간은 많이 걸리고, 전문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풀이하고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용례를 모아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조사하는, 복잡하고 세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보통 잘 모른다. 그것도 남과 북뿐만 아니라 중국과 카자흐스탄 등 동포 사회까지 대상으로 삼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더 어려운 작업이었다. 오랫동안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독자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에 감사드리며, 이 사전이 원래의 남북 합의대로, 공동의 협의를 거쳐 완성되는 날이 곧 오기를 고대한다.





↑ 저녁 일곱 시. 뭍의 가로등과 바다의 가로등이 나란히 불을 밝히는 시간.



↑ 기울어진 볕과 식탁의 조명이 교차하는 시간. 달그락거리는 도마 소리 위로, 매일 저녁 켜지는 어머니의 다정한 가로등 이야기가 천천히 조리되기 시작한다.

바다와 가로등

글 · 사진 **강건모** 에세이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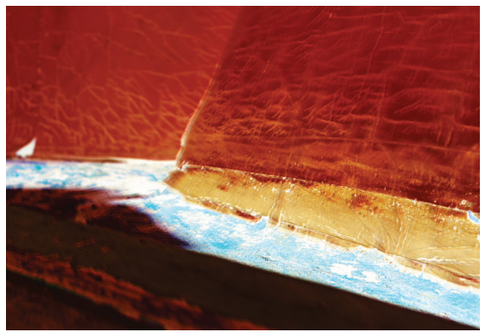
우리 집 거실 창밖에는 큰 저수지가 있고, 그 너머론 바다가 펼쳐져 있다. 날씨가 쾌청한 날에는 바다 건너 섬들이 바로 지척인 듯 선명하게 보인다. 해 질 무렵이면 바다에 불빛이 하나둘 떠오른다. 어선의 집어등이다. 한치나 갈치를 잡으러 나간 배도 있을 거고, 밤낚시를 나선 배도 있을 테다. 먼 불빛만으로는 그 둘을 가늠할 수 없지만, 저마다 사연을 품은 채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를 밝히고 있다.

그때쯤 나는 저녁을 준비하다가 어머니의 감탄사를 듣는다. 거실 작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던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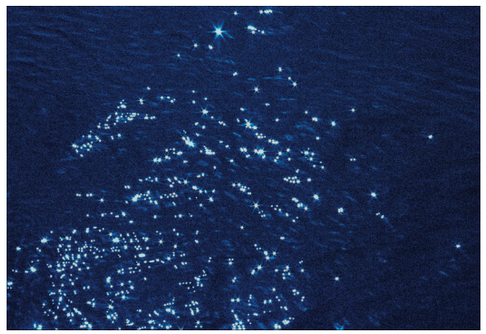
"와아! 저 저, 바다에 가로등 켜진 거 좀 봐라."

가로등? 처음에는 그저 비유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같은 말씀을 매일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노랗고 붉은 먼 불빛만 보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가로등 타령을 하셨다. 나는 그 까닭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노을이 켜지는 시간에 맞춰 번져오는 것은 오래된 흑백영화다. 1963년에 개봉한 〈유랑극장〉. 어머니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주신다. 젊은 박노식 배우가 바닷가의 가로등 아래 서



↑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도 한 장면은 남는다. 문 닫은 지 오래인 어느 서커스장의 붉은 천이 아직도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 영화 상영이 끝난 극장 객석에 홀로 남아 마지막 잔상을 응시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저마다의 내면에 켜진 다정한 잔광(殘光)에 기대어, 생의 밤바다를 건너가는 게 아닐까.

서 안다성의 노래 〈바닷가에서〉를 부르는 모습이다. "파도 소리 들리는/ 쓸쓸한 바닷가에/ 흘러간 옛날의 추억에 잠겨/ 나 홀로 있네."

영화를 직접 본 적이 없으니 어머니의 기억이 실제 영화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십대의 어느 날 보았던 영화 속 가로등을 팔십이 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오래 마음에 남는다. 살아갈 날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고, 잃어버린 것보다 앞으로 만날 것이 더 많았던 시절, 그때의 가로등은 어머니에게 어떤 빛이었을까.

사실 나에게도 가로등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빛이었다. 마흔한 살에 남편을 여읜 어머니는 식당에 나가 일하며 밤늦게 혹은 다음 날에야 집에 오는 날이 많았다. 밤이 늦으면 나는 마당에 나가 서 있곤 했다. 흙냄새가 올라오는 어두운 마당 너머, 마을회관 앞 가로등 하나가 노랗게 켜져 있었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기다렸다. 아홉 시가 지나고 열 시가 가까워져도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다. 그런 밤엔 '혹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다 익숙한 실루엣이 가로등의 둥근 빛 안으로 들어오면 그제야 마음을 놓았다. 그때 내게 가로등은 어머니를 마중하는 빛이었다.

얼마 전, 응급실로 이송된 어머니가 병상에서 섬망을 보이던 모습을 지켜보던 날들이 있었다.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더듬는 어머니는 수명을 다해 깜빡이는 낡은 가로등 같았다. 처음 이곳으로 모시고 왔을 때, 바람 앞의 촛불처럼 쇠약하던 어머니가 얼마나 내 곁에 머물러 줄지 몰라 서글펐던 밤들이 다시금 밀려왔다. 그때 나는 오래전 마당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아이와 다시 마주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다만 이번에는 내가 어머니 곁을 지켜야 했다. 어머니가 길을 잃지 않도록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어야 했다.

다행히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다. 새로 추가된 의료기기의 도움을 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다시 이 평범한 저녁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이제 저녁이면 예전처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술을 뜨시고, 창밖에 펼쳐진 풍경에 스르르 눈을 앗긴다. 그러고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이 말씀을 덧붙이신다.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이 참 좋았지."

생각해보면 사람에게는 세월이 가도 내내 그 자신에게 남아 있는 빛이 하나쯤 있는 것 같다. 어떤 어둠이 덮쳐 와도 끝내 꺼지지 않고, 생의 가장 캄캄한 밤을 묵묵히 지켜주는 작고 다정한 불빛 말이다. 우리는 필시 그 빛 하나에 기대어 저마다의 막막한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 불이 켜지지 않은 바닷가 가로등 아래, 한 사람이 아직 오지 않은 빛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저녁에도 해가 지면 바다 위에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질 것이다. 그러면 〈유랑극장〉의 마지막 장면도 처음인 듯 되살아나겠지. 어머니는 감탄할 것이고, 나는 그런 어머니의 곁에서 함께 저녁을 맞을 것이다. 한때는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혼자 바라보던 빛이었다. 이제는 우리가 나란히 바라보는 빛이다.



강건모

에세이스트, 문학편집자, 사진가. 사진에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산문집 『무탈한 하루』를 펴냈고, 단편영화 〈바람작업실〉을 연출했다. 현재 제주에 살며 이야기가 피어나는 삶의 결정적 순간을 다양한 예술 언어로 담아내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 종이사전의 자리

이번 기획특집의 주제는 '종이사전 출판의 의미'이다. 우리는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찾기 위해 두툼한 종이사전을 꺼내기보다 검색창을 열고 낱말을 입력하는 데 익숙해졌다. 이제는 그마저도 번거로워 생성형 AI에게 질문한다. AI는 낱말의 뜻풀이부터 용례, 어원까지 순식간에 답할 뿐 아니라 쓰고자 하는 문장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추천해 준다. 필요한 정보를 얻는 속도만 보자면 종이사전은 웹사전, 검색포털, AI 그 어느 것들과 비교해도 매력적이지 않다.

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 종이 대사전을 발간하고, 《전자 겨레말큰사전》을 개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종이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겨레말큰사전》을 종이사전으로 펴내는 일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에 본지는 김양진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장경식 한국백과사전연구소 대표를 필자로 모시고 종이사전 편찬과 《겨레말큰사전》 출간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우리말 사전을 출판하고 있는 도서출판 보리의 윤구병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출판업계 입장에서 사전 편찬을 돌아봤다. 종이사전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말하는 지금, 수십만 개의 말을 모으고 다듬어 여러 권의 책으로 펴내는 일을 우리는 왜 계속해야 하는가. 종이책이 끝내 사라지지 않듯, 종이사전에서도 또 다른 출간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필자들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편찬에 참여한 김양진은 사전이 단순히 낱말의 뜻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의 표제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들을 어떤 순서로 배열하고 서로 어떤 관계로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결국 한 언어의 질서를 설계하는 작업이다. 종이사전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의미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검색창이 당장 필요한 뜻 하나를 보여준다면 종이사전은 한 낱말이 펼쳐놓는 세계 전체를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김양진은 《겨레말큰사전》이 단어의 목록을 넘어 한민족의 언어 경험을 펼쳐놓은 하나의 '언어 지도'이자 우리 시대의 언어를 미래에 전하는 기록이라고 봤다. 그리고 종이로 된 《겨레말큰사전》은 "남과 북이,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이 함께 만들어, 겨레말을 하나의 체계로 집대성한 최대의 기록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브리태니커사에서 한국어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편찬에 참여한 장경식은 언어에서 지식과 사회의 역사로 시선을 넓힌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사전편찬자 노아 웹스터의 사전에서 프랑스 철학자 디드로의 《백과전서》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이르기까지, 사전은 흩어진 지식을 모으고 배열하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 왔으며, 한 권의 사전에는 시대와 사회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새겨져 있다. 그는 종이사전의 물성을 그 시대의 담론과 지식의 전체 모습을 보존하는 '담론의 구성체'라고 봤다. 이어 《겨레말큰사전》이 담보하는 독특한 위상을 언급하며 "이 사전의 바탕에는 반만년의 역사라는 공통점과 함께,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80년 넘게 이어진 한국 현대사의 단절이 깔려 있다."라며, "이 사전의 가치가 남북통일이라는 미래를 견인하는 데에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금–여기에서 이 사전의 물성이 가져야 할 고유의 영역을 잘 드러낸다."라고 말했다.

도서출판 보리의 이야기는 다시 사전을 펼쳐 읽는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보리 국어사전》을 비롯해 여러 사전을 기획해 출판한 윤구병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도서출판 보리를 대표하는 《보리 국어사전》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아이들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이들이 일상에서 주고받는 말들로 용례를 만들고, 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는 세밀화로 보여줬다. 사전이 지식을 담는 그릇이라면 누구의 말을 담고 누구에게 읽힐 것인가, 역시 사전을 만드는 중요한 질문임을 보여준다.

윤구병은 "아무리 과학 기술이 극단에 다다르더라도 종이책이 없어지지 않는다. 종이책은 종이책의 기능을 한다."라며, 이는 "가장 효율적이고도 경제적이고 소유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도 종이사전의 자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욱 분명해질지도 모른다. 빠르게 답을 얻는 일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또는 더 발전된 기술이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말을 세상에 남길 것인지, 그 말들을 어떤 관계 속에서 기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종이사전은 한 시대의 언어를 기록하는 책이자 그 언어의 세계를 다음 세대에 건네는 시대의 대답이기 때문이다.

사전을 만든다는 것, 언어를 남긴다는 것

–《겨레말큰사전》 종이사전 출간에 부쳐

글 **김양진**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겨레말큰사전》이 종이사전으로 출간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문득 오래전 교정지를 넘기던 연구실 풍경이 떠올랐다. 빨간 수정기호가 빼곡히 적힌 교정쇄 위에서 우리는 표제어 하나, 용례 하나를 두고 며칠씩 토론하곤 했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우리가 만들던《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 종이사전으로서의 한국어대사전 시대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마지막 작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요즘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누구나 스마트폰부터 꺼낸다.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뜻이 나타난다. 인공지능은 예문까지 만들어 준다. 정보 검색의 속도만 놓고 보면 종이사전은 이미 인터넷 사전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왜 종이사전이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종이사전을 직접 만들어 본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이해하고 발견하게 하는 책

사람들은 국어사전이 그저 우리말 단어의 뜻을 모아 놓은 책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편찬자의 눈으로 보면 사전은 단순히 단어와 용례를 모아 놓은 책이 아니라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한국어)의 질서를 설계하여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언어의 지도이며 한 시대의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해 온 방식을 고스란히 담아낸 지식의 저장소이다. 사전의 가치는 단어의 의미와 용례 하나하나보다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배열되어 있는가를 한눈에 보여 주는 데에 있다.

국어사전 편찬 과정에서 가장 오래 씨름했던 표제어 가운데 하나가 '가다'였다. 사람들은 '가다'를 누구나 아는

> 새로운 용례 하나가 등장하면 뜻풀이의 순서도 달라지고 품사 정보도 새롭게 조정되어야만 했다. 사전은 뜻을 나열하는 책이 아니라 의미의 구조를 보여 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 스스로 사전이 단순한 정보의 집합체가 아니라 우리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설계도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곤 했다.

쉬운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전을 만드는 사람에게 '가다'는 가장 어려운 단어 가운데 하나이다.《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가다'는 자동사의 의미만 스물여덟 가지이고, 타동사의 의미가 일곱 가지이다. 여기에 보조동사로 쓰이는 용법까지 포함하면 모두 서른여섯 가지의 의미와 용법이 설명되어 있고 각 의미에 딸린 파생 의미까지, 모두 마흔두 가지의 의미와 용법이 구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연구자의 직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 문헌과 말뭉치를 뒤져 각각의 의미를 보여 주는 용례를 찾고, 서로 비슷해 보이는 의미를 문맥에 따라 구분하며, 문법 정보를 덧붙이고, 관련된 관용 표현을 정리해야 한다. 단어에 따라서는 어원과 역사적 용법까지도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하나의 뜻을 새로 세울 것인지, 기존 뜻에 포함할 것인지, 용례가 그 의미를 대표할 수 있는지, 문법 구조가 달라지면 의미도 달라지는지,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두고 오랜 시간 토론을 거듭했다.

뜻풀이의 순서를 바꾸고 용례를 하나하나 교체하고, 품사 정보를 다시 검토하는 일이 출간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가다'라는 단어 하나를 완성하는 데에 며칠이 걸렸는지 이제 기억도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며칠, 아니 몇 달을 두고 토론했던 일만은 지금도 생생하다. 한쪽의 국어사전을 채우려면 빨갛게 표시된 수백 쪽의 출력물들을 신물이 나도록 봐야만 했다. 독자가 인터넷 사전에서 검색해서 몇 초 만에 읽는 한 줄의 뜻풀이는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 일은 그다음이었다. 어렵게 정리한 사십여 가지 의미를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의미를 맨 앞에 세울 것인지, 거기에서 파생된 의미를 어떤 흐름으로 배치할 것인지, 독자가 한눈에 중심 의미와 부차적 의미를 구별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두고 수없이 고민했다. 새로운 용례 하나가 등장하면 뜻풀이의 순서도 달라지고 품사 정보도 새롭게 조정되어야만 했다. 사전은 뜻을 나열하는 책이 아니라 의미의 구조를 보여 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 스스로 사전이 단순한 정보의 집합체가 아니라 우리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설계도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곤 했다.

바로 여기에 종이사전만이 지닌 장점이 있다. 종이사전에서 독자는 '가다'라는 한 표제어 아래 펼쳐진 의미 전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뜻과 가장 널리 쓰이는 뜻에서 출발하여 비유적 의미로 확장되는 과정,

자동사와 타동사의 관계, 보조동사의 기능, 관련 관용 표현들과 어원과 용례 그리고 상세하게 덧붙은 용법 설명과 때론 그림들까지가 하나의 체계 속에서 연결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읽게 된다. 사전 편찬자가 수많은 시간을 들여 설계한 의미의 질서를 독자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겨레말큰사전》의 종이사전도 같은 장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반면 오늘날의 온라인 상에서의 검색 환경은 매우 효율적이지만 이용 방식이 다르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의미 하나만 확인하고 화면을 닫는다. 검색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지만, 단어 전체의 의미 체계와 편찬자가 의도한 배열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디지털의 한계라기보다 검색이라는 이용 방식의 특성이다. 종이사전은 단어를 점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입체적인 지형지물로 보여 준다. 그래서 종이사전은 단어를 '찾게' 하는 책이 아니라 단어를 '이해하고', '발견하게' 하는 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민족의 언어 지도 역할

나는 오랫동안 사전을 만들면서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사전은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한 시대의 언어를 기록하는 총체적 기록물이라는 점이다. 사전 속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말을 사용했고, 어떤 뜻으로 이해했으며, 어떤 문화를 공유했는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사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소중한 연구 자료가 된다. 오늘날 우리가 오래된 사전을 통해 백 년 전 우리말의 모습을 연구하듯이, 미래의 연구자들도 오늘의 사전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겨레말큰사전》의 종이사전 출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사전은 남과 북을 포함해서 오랜 디아스포라 끝에 전 세계에 자리 잡은 한민족의 언어 경험이, 오랜 세월 각기 다른 환경에서 발전시켜 온 어휘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담아낸 최초의 대규모 '겨레말 사전'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겨레말의 단어를 모아 놓은 자료집이 아니다. 분단 이후, 혹은 분단 이전의 디아스포라를 통해 남과 북, 중국 연변 지역, 일본, 중앙아시아, 미주와 하와이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언어와의 접촉을 통해 다양한 변화의 길을 걸어온 우리 겨레말의 이력과 현재를 한자리에서 보여 주는 한겨레 언어문화의 총체적 기록이다. 우리말 한 단어 옆에 놓인 그 숱한 경험의 실체들은 한민족의 언어에 세계인의 경험이 담긴 언어 지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종이사전은 이러한 언어의 전체 모습을 가장 온전한 형태로 보여 줄 수 있다. 편찬자가 설계한 내용 이전에 우리 민족의 국제적으로 확장된 언어 경험의 총체까지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전은 종이라는 매체를 통해 비로소 하나의 완결된 언어문화의 기념비가 된다. 디지털 데이터는 계속 수정되고 갱신될 수 있다. 그것은 디지털의 장점이다. 그러나 종이사전은 특정한 시점의 연구 성과를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남긴다. 연구자들은 이 책을 인용하고, 우리의 후대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시대의 언어를 읽게 될 것이다. 종이사전은 단순한 정보 저장소가 아니라 시대를 증언하는 기록물인 것이다.

종이사전, 디지털 시대에 남을 문화유산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편찬에 참여했던 나는 스스로 종이사전 시대의 마지막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사전은 한 시대의 언어를 기억한다. 검색은 현재를 위해 존재하지만, 종이사전은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진다. 《겨레말큰사전》이 종이사전으로 출간되는 일의 의의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은 남과 북이,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이 함께 만들어, 겨레말을 하나의 체계로 집대성한 최대의 기록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겨레말큰사전》의 종이사전 출간이 더욱 뜻깊다.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시대이기에 더욱 필요한 작업이다. 빠른 검색이 일상이 된 시대일수록 언어 전체를 조망하게 하는 사전, 한 시대의 언어를 완결된 모습으로 기록하는 사전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검색은 필요한 정보를 찾아준다. 그러나 사전은 한 시대의 언어를 기억한다. 검색은 현재를 위해 존재하지만, 종이사전은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진다. 《겨레말큰사전》이 종이사전으로 출간되는 일의 의의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은 남과 북이,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이 함께 만들어, 겨레말을 하나의 체계로 집대성한 최대의 기록물이기도 하다. 이 기록들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 실체를 종이사전의 형식으로 남겨야 한다. 기록을 통해 문화를 후대에 전해 온 것은 우리 겨레의 오랜 전통이다. 우리는 『직지』를 만들었고 『팔만대장경』을 찍어 내었으며 『조선왕조실록』을 보유한 민족이다. 오랫동안 국어대사전 편찬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겨레말큰사전》 종이사전 역시 그러한 기록 문화의 계보 속에서, 우리 시대의 겨레말을 후세에 전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여, 오래도록 읽히고 연구되고 사랑받기를 기대한다.



김양진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편찬에 참여했고 한말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재미있는 한국어 표기법 이야기』, 『추정 이강래-민족어 교육의 한길』(공저), 『질병표현어휘사전』 I~V, 『언어학으로 풀어본 문자의 세계』(공역), 『우리말수첩』, 『국어사전학개론』(공저), 『사전 편찬의 원리와 실제』(공역), 『아빠가 들려주는 우리말 어원이야기』 1~3 등을 썼다.

사전은 힘이 세다

– 사전을 펴낸다는 일

글 **장경식** 한국백과사전연구소 대표



↑ 한국어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사전을 편찬한다는 것

사전은 힘이 세다.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 놓기만 해도 새로운 세계를 열 만큼 힘이 세다.

미국의 독립 전쟁이 발발했던 1775년, 노아 웹스터(Noah Webster)라는 소년이 있었다. 16살이었던 웹스터는 예일 대학교 신입생이었는데, 그의 대학 생활은 미국 독립 전쟁과 겹쳤고, 식량 부족에 영국군의 침공으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웹스터는 코네티컷 민병대에서 복무하면서 미국 독립의 의미를 깊이 고민한 끝에, 미국 독립 전쟁이 끝난 1783년 《미국식 철자법 책(The American Spelling Book)》의 첫 권을 펴냈다. 미국이라는 새로 독립한 나라의 지향에 유럽과는 다른 고유의 특성이 있다고 믿었던 그는, 그 차이를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고, 수많은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인들의 언어를 수집하면서 철자법을 정리하고 개혁했다. 이 책은 영어에서 미국어를 독립시키기 위해 편찬된 미국 고유 철자법의 첫 번째 책이었다. 당시 영국 영어의 표준을 상징했으며, 미국의 독립운동가들도 참고했던 새뮤얼 존슨(Samuel Johnson)의 《영어사전(A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을 대체하기 위하여, 노아 웹스터가 미국인의 언어를 바탕으로 새로 편찬한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 사전은 지금까지도 미국 영어를 대표하는 영어사전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는 '미국 영어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다.

1750년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가 첫 권을 펴낸 《백과전서(L'Encyclopédie)》에 실린 항목들 가운데 많은 내용은 이미 씌어져 있었던 문헌이나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한 서적상이 당시 2권으로 출판되었던 영국의 《체임버스 백과사전(Cyclopaedia, or Universal Dictionary of Arts and Sciences)》의 프랑스어판 번역을 디드로에게 제안했을 때, 디드로는 단순한 번역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의 모든 새로운 지식과 개념을 한 그릇에 담아 보자고 서적상을 설득했다. 디드로는 기존에 존재하던 과학·기술·인문 분야의 논문과 문헌을 수집하는 한편, 당대 최고 지식인이었던 볼테르·루소·몽테스키외 등 수많은 석학에게 집필을 의뢰했다. 그 결과 출간된 《백과전서》는 중세 이후 학문 체계의 기본이었던 신학·법학·철학·의학에 더하여 그동안 저급하게 여겨졌던 과학과 기술 항목들을 신학과 대등한 위상으로 다룸으로써 당대의 종교적 권력에 대항하는 새로운 '담론'의 출현으로 표상되었으며, 드디어 근대 계몽주의를 추동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 두 사례는 '사전'이라는 출판물이 어떻게 근대와 근대 시민 국가의 성립에 기여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겠다.

아마도 최후의 백과사전, 브리태니커

사전은 힘이 세다. 한눈에 전체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힘이 세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보통 관념적으로 그 본질을 탐구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관념을 실제로 눈에 보이게 하는 일이다. 누구라도 지식의 중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방식에 있다. 근대 지도의 제작이 신항로 개척 시대를 이끌었다는 점은 정보의 구조적 배열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디드로의 《백과전서》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었던 스코틀랜드 신사협회(Society of Gentlemen in Scotland)의 몇몇 '신사'들에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발행의 아이디어를 준 것은 분명하다. 기록에 따르면 앤드류 벨(Andrew Bell)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쇄소를 소유하고 있던 콜린 맥파쿠하(Colin Macfarquhar)와 함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기획을 주도했고, 자연사 연구자였으며 편집인이었던 윌리엄 스멜리(William Smelie)를 설득해 백과사전의 편집에 참여하게 했다.

윌리엄 스멜리가 1760년에 뉴턴 학회를 설립했던 인물이었으며 1781년에는 에든버러 자연사 박물관의 감독관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 사람 역시 당대 계몽주의의 내면을 꼼꼼하게 간파하고 있었고 이를 백과사전이라는 장을 통해 실천한 인물들임을 방증해 준다. 어떤 까닭이었든, 에든버러의 이 세 신사가 협력해 만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베이컨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백과사전들 가운데 그 구조와 내면에서 가장 뛰어난 백과사전으로 인정받으면서, 이후 250여 년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전통의 정점을 이룬 판이 바로 15판이다.

1943년 시카고대학 총장이었던 로버트 허친스(Robert M. Hutchins)가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때부터 20세기 내내 지속된 시카고대학과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시작되었다. 허친스에 이어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된 모티머 애들러(Mortimer J. Adler)를 비롯한 시카고학파의 협력을 통해 전면적으로 개정된 제15판이 1974년에 간행되었는데, 제15판은 사전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찾아보는 책이라는 고정 관념을 근본부터 바꾸었다. 세계 100여 개국 4,000여 명의 필자가 기고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제15판은 백과사전의 전통적인 두 가지 효용인 교육과 참조의 목적을 함께 만족시키는 이중 구조를 채택하고, 이 복합적인 지식의 집적물을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두 가지 지식 검색 방식을 제시했다. 제15판은 '마이크로피디아(Micropaedia, 소항목사전)', '매크로피디아(Macropaedia, 대항목사전)', '프로피디아(Propaedia, 주제 색인)', '인덱스(Index, 어휘 색인)'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인간이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의 구조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현한, 아마도 다시 나오기 어려운 지식의 물성 그 자체였다. 21세기 들어 등장한, 집단 지성의 산물이라는 위키피디아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몇몇 항목에서 오류 여부를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려는 시도가 있긴 했지만, 그 누구도 제15판이 이룬 지식의 구조를 뛰어넘는 제안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시대의 반영, 시대의 흔적

사전은 힘이 세다. 그것은 한 시대의 표상을 상징할뿐더러, 그것의 역사적 흔적을 의미할 만큼 힘이 세다.

사전의 편찬은 사전마다 다른 편집 지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사전의 편집 지침은 해당 사회의 여러 담론을 바탕으로 제정되기 마련이며, 편집 지침에 따라 사전이 다루고 있는 표제어와 풀이말이 달라진다. 즉 사전의 구조뿐 아니라 개별 항목 하나하나는 해당 사회의 담론, 또는 발간 주체가 강조하는 담론에 바탕을 두어 진술된 것이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어떤 사회에서 역사의 어떤 순간에 사회적 규칙을 제안하는 진술문의 생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담론의 실천(discursive practice)'이라고 불렀다. 담론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가지는데, 추상적인 의미에서 담론이란 '사회적 실천으로 인식되는 언어 사용'이며,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특정한 세계관 하에서 경험을 의미화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이렇게 생산되는 구성체 가운데 아마도 가장 큰 총체성을 가지는 담론의 덩어리로 사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해방 후 북한으로 간 언어학자 김수경의 주도 아래, 그때까지 한국어 표기의 관행이었던 두음 법칙을 폐기하는 등 새로운 언어 정책을 적용하여 편찬한 북한의 《조선어 소사전》(1956)과 《조선말 사전》(1962)과 같은 사전들은, 같은 한국어라 하더라도 어떻게 서로 다른 언어 규범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전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미국어의 독립을 선언한 《메리엄웹스터》 사전과도 같아서, 같은 언어라도 국가 담론이 반영되어 새로운 언어 규범이 구조화되는 과정의 역사적 흔적으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사전은 '담론의 구성체'라고 볼 수 있다. 사전은 그 모두가 특정 분야에 대한 편찬 주체의 관점과 견해가 반영된 담론의 구성체였으며, '종이책'이라는 물성을 통해 그 담론의 총체와 함께 정체성의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담론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전의 유용성을 확보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편찬자들은 저마다 고유한 담론 체계를 구성하여 지식을 정제하고 집약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로 각각의 사전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담론을 출현할 수 있게 했고, 이들이 창출한 담론의 다양성은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깊이를 독자와 사회에 제공해 왔다. 즉, 사전은 담론의 귀납적 결과물이면서, 또한 연역적으로 담론의 생산과 유통에 기여하는 네트워크의 한 중심이었다. '종이책'이라는 사전의 물성은 어느 한때의 역사를 상징하며, 그것의 변함없는 가치를 간직함으로써, 담론 자체를 보전하는 최선의 방책이었다.

AI 시대의 종이사전, 더욱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

인공지능은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하여 형성된다. 그 거대 언어 모델은 대개 위키피디아와 같이 인터넷으로 수집 가능한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였던 캐나다의 물리학자 도나 스트리클런드(Donna Strickland)의 경우, 노벨상을 받기 전에는 위키피디아에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다. 전 세계 위키피디아 편집자의 90% 이상이 남성이라는 점을 환기해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위키피디아는 이처럼 성별·언어·국적·성향 등에 있어 많은 편향과 왜곡의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며, 형식적이지만 근거를 제시한다는 가정 아래 많은 사람이 참조 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이런 모호한 자료가 그대로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다. 최근 참여한 몇몇 인공지능 관련 세미나에서 확인한 사실은, 2026년 상반기를 전후하여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거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했음에도 응답의 품질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정황이었다.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이 편향과 왜곡이 섞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럴듯한 답'은 만들어 내지만, '믿을 만한 답'을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사전은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그럴듯한 답'이 사실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선의 '신뢰할 만한 자료'이다.

사전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기 드문 총체성을 보여주는 매체다. 앞에서 사전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사상과 논점을 '담론'이라고 표현하고, 사전을 그 담론이 총체성을 띠고 드러낸 '담론의 구성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이 담보하는 독특한 위상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이 사전의 바탕에는 반만년의 역사라는 공통점과 함께,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80년 넘게 이어진 한국 현대사의 단절이 깔려 있다. 2005년 남북은 이 사전의 편찬에 합의한 후, "민족의 언어 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이라는 지상의 명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서로 다른 언어 규범에서 나오는 차이를 극복한 공동 편찬 요강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남북의 뜻풀이 차이와 같은 미시 구조뿐 아니라, 올림말의 선정이나 배열순과 같은 거시 구조도 포함되는데, 이는 이 사전의 가치가 남북통일이라는 미래를 견인하는 데에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금-여기에서 이 사전의 물성이 가져야 할 고유의 영역을 잘 드러낸다.

달리 말해 《겨레말큰사전》은 현실적으로 당대의 언중이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참고할 실용적인 사전이 아니라, 남북통일이라는 담론을 전제로 한 미래의 규범이 적용된 사전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겨레말큰사전》의 본질과 총체성을 모니터 속 검색 화면으로는 모두 보여주기 어려운 것은, 그 자체로 사실이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까? 모니터 속의 인공지능은 이 본질을 해체하여, 다른 허튼 것들과 섞은 후, 정체 모를 새로운 것을 '그럴듯한 답'으로 제시할 것이다.

사전은 힘이 세다. 식민지를 어엿한 국가로 독립시키고, 분단된 나라를 통일의 길로 이끌 만큼 힘이 세다. 그러나 그 힘은 사전의 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된다. 사전의 힘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사전의 힘은 사라진다.



장경식

한국백과사전연구소 대표. 1994년 한국어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완간 이후, 한국어판 《브리태니커 연감》과 한국어판 《브리태니커 온라인》 등을 개발했고, 한국브리태니커회사 대표를 지냈다. 한국사전학회의 창립 회원이며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대한 개설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인공지능 시대의 사전 이야기를 담은 《AI와 사전》, 공저로 《세계의 백과사전》, 《디지털 인문학과 사전》 등을 펴냈다.

《보리 국어사전》이 지키고자 한 말들

글 · 정리 **도서출판 보리** 편집부



보리출판사(아래 '보리')는 2008년 《보리 국어사전》을 처음 세상에 선보였다. 아이들에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우리말 풀이 사전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든 사전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보리는 《보리 국어 바로쓰기 사전》, 《보리 속담 사전》, 《보리 생태 사전》 같은 여러 사전을 느리지만 꾸준히 펴내고 있다. 그리고 이 사전들의 기획은 모두 윤구병 선생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사전을 엮어온 긴 시간에 대해 보리 편집부가 후배 편집인들을 대신하여 윤구병 선생과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

보리가 사전을 펴낸 지도 이십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리'하면 '사전'과 '도감'을 떠올릴 정도로 사전이 보리의 정체성이 됐는데요. 그 시작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작은 《보리 국어사전》이지요. 맨 처음에 나한테 지금 나온 꼴로 사전을 내도록 부추긴 사람이 있어요. '이성인'이라고 당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때도 국어사전은 여럿 있었지요. 그런데 낱말 뜻을 살펴보려고 들춰보면 낯선 개념어로 된 한자어들로만 채워져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읽어서 알 수 있는 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가르치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저한테 "이거 너무 어렵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국어사전을 새로 보리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듣고 보니 그 고충이 이해되더라고요. 직접 사전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 사전들은 초등용이 아니더라고요. 《뿌리깊은 나무》를 편집하던 시절부터 우리말에 대해 관심이 많던 저는 이건 안 되겠다, 꼭 제대로 된 사전을 만들어야겠다 싶은데 이게 시간도, 비용도 품도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당시 보리에서 사전까지 펴내기는 어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토박이'라는 사전 편찬팀을 따로 독립시키고 보리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사전 편찬을 시작했는데, 약속한 5년보다 자꾸 늦어졌어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고 진행이 더디다, 만든다 해도 판매량이 높지 않을 것이다, 그만 접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한 일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웃음). 그래서 2년만 시간을 더 다오, 애원하고 집중해서 7년하고도 두 달 만에 나온 것이 《보리 국어사전》입니다. 이게 다행히도 지금까지 보리를 먹여 살리는 젖줄이 된 거예요.

주변의 우려에도 사전을 완성했던 것은 《보리 국어사전》에 꼭 담아내고자 했던 말이 있기 때문이었단 생각이 듭니다.

토박이말들, 초등학생들이 일상으로 쓰는 말들, 그 가운데서도 한자어가 아닌 깨끗한 우리말을 골라서 담자는 것이 그때의 생각이었죠. 당시 다른 사전들은 꼭 문학작품에서 나오는 구절들을 따와 용례로 삼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로 용례를 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리 국어사전》에서는 용례를 새로 다 만들었어요. 일상생활에서 실제 쓰이는 말이나 아이들이 직접 쓰는 말들로요. 그래서 다른 사전들과 비교해 보면 좀 다릅니다. 학부모들도 이 점을 높이 샀지요. 저는 지금까지 《보리 국어사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불만을 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잘 만들어진 사전이지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전이 된 것에는 풀이말이 쉬운 까닭도 있고 다양한 세밀화와 시원시원한 편집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우리 나이로 대략 7세부터 11세까지 '구체적 조작기'라고 해요. 이 구체적 조작기는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때여서 귀, 코, 혀, 살갗처럼 감각으로 직접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이걸 보여줘야 해요. 가령 우리가 '사과'하면, 사과라는 말의 뜻풀이를 알려 줄 수도 있지만 사과라는 것을 세밀화로 직접 보여주면 훨씬 더 아이들이 익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밀화를 넣기 시작했어요. 당시 디자이너였던 박영신 선생이 디자인한 거예요. 다른 사전들을 보면 본문 속에 사진도 넣고 그림도 같이 넣어서 글을 수정하고 판을 찍을 때마다 그 위치를 옮겨야 하니 어마어마하게 큰 낭비거든요. 그런데 3단으로 글 상자와 그림 상자를 나누어 양옆에 글을 넣고 가운데 단에는 그림만 집어넣도록 하니 조정하기에 부담이 없었죠. 또 그림이 많이 들어 있어도 중간에 있으니까 굉장히 정돈되어 보였어요. 글로 빼곡히 찬 사전을 보면 숨통이 트이지 않는데 말이죠. 이 점에서는 크게 성공한 디자인이라고 봐요.

《보리 국어사전》이 어떻게 읽히길 바라셨나요?

우리가 어떤 낱말, 어떤 단어를 보고 무슨 뜻인지 모를 때 맨 먼저 사전을 뒤적거리잖아요. 모든 사전이 그런데요, 《보리 국어사전》을 만들면서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사전이 아니라 평소에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제몫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보리 국어사전》은 모르는 단어만 딱 찾고 덮는 사전이 아니라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어지는 것, 두고두고 보는 것, 심심하면 들춰보는 사전인 것이죠.

보리는 《보리 국어 바로쓰기 사전》이나 《보리 속담 사전》, 《보리 생태 사전》 등 사전을 펴내고 있습니다. 보리가 계속 사전을 출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전의 기본 형식이라면 모든 나라에서 자기 나라 말 사전을 내는 게 맨 처음에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정보가 점점 늘어 종합할 필요가 있을 때면 백과사전으로 전환되고요.
사전은 모든 다른 책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 종류의 사전을 내야 하고 또 충실하게 만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리 국어 바로쓰기 사전》과 《보리 속담 사전》은 《보리 국어사전》 옆에 두고 함께 볼만하게 만든 것이지요. 바르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우리말을 제대로 써야 하잖아요. 《보리 국어 바로쓰기 사전》은 우리 말글을 바로쓰는 법을 쉬운 보기를 통해 알려줍니다. 속담은 짧은 말 속에 탁월한 비유와 우리 문화를 담고 있지요. 아이들이 지혜로운 말들을 익히는 데에 속담만 한 것이 없어요. 또 보리는 삼십 년 가까이 우리 땅의 동식물을 세밀화로 기록해 왔지요. 이것을 모아서 사전 형식으로 엮은 것이 《보리 생태 사전》입니다. 펼쳐 읽다 보면 저절로 우리 둘레의 자연을 익히게 되는 거지요.

지금 만들고 있는 사전인 《보리 의성어·의태어 사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데서 가장 애를 많이 먹는 게 의성어와 의태어라고 그래요. 이 의성어, 의태어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하자면, 이게 양성 모음으로 되어 있느냐, 음성 모음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엄마가 아이 궁둥이를 찰싹찰싹 때렸다.”, “바닷가에 나왔더니 물결이 철썩철썩 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느낌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른데 외국어에는 이게 없어요. 서구 언어 가운데서 의성어, 의태어를 이래저래 긁어모아 봐야 400개 안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린 사전을 이룰 만큼 많잖아요. 우리말을 서구 언어로 옮기는 번역자들에게도 지옥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세종 임금이 훈민정음을 창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다고 봐요. 한자어, 의성어, 의태어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를 테니까.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면 이거 하나둘씩 다 없어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소리흉내말 의성어, 짓시늉말 의태어. 저는 이것들이야말로 실제 우리 문화의 가장 큰, 소중하고 아껴야 할 유산 가운데 하나라고 봐요. 저는 예전부터 의성어·의태어 사전을 만들자는 뜻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동안은 엄두를 못 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늦어졌는지 몰라요. 20년 가까이 졸라댔어요(웃음).

> “남북의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뿐만 아니라 정서나 가치관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전을 만들지 않으면 아이들까지도 서로 등지는 세상이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 남녘과 북녘에서 두루 쓰는 쉬운 낱말을 할 수 있는 대로 빠짐없이 챙겨 싣자, 그리고 표기법이 다르거나 북녘에서는 쓰는 낱말인데 남녘 사람들에게는 낯선 낱말도 빠뜨리지 말자는 뜻을 세우고 낱말들을 모으다 보니, 사전의 부피가 1,500쪽을 넘어섰습니다.”
>
> –《보리 국어사전》 첫 판을 내면서(2008년 2월 29일, 엮은이들을 대표하여 윤구병.) 부분

그간 꿈꾸던 사전 중에 만들지 못한 사전이 있나요?

사전은 용례 사전, 문법 사전, 속담 사전 등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하나하나 다 보리에서 품을 들여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보리 국어사전》이야 절박했기 때문에 보리에서 시작했지만, 나머지 사전들은 다른 데서 하리라 생각했어요. 사실은 다른 사전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특히 제가 기대했던 것이 《겨레말큰사전》, 그것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했어요.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여러 문제가 얽히고설키면서 아직도 나오지 못했죠. 북녘에서는 문화어라고 하고, 우리는 표준어라고 하죠. 말, 언어의 통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남과 북을 물리적으로 결합한다 하더라도 말이 다르면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남녘과 북녘이 다시 하나가 되는 세상을 꿈꾸면서, 그 꿈을 잃지 말자는 뜻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사전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죠.

온라인 검색 환경, AI 시대 종이사전이 ‘곁에 두고두고 보는 사전’이라는 기능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과학 기술이 환경을 급속히 바꾸잖아요. 집 안으로 모든 것들이 들어와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영화관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도 있었죠. 그렇게는 안 되었잖아요. 여전히 영화관은 영화관의 기능을 하죠. 종이책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기는 먹통이 돼버리지만, 낮에 햇빛만 있으면 맨눈으로 종이책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아무리 과학 기술이 극단에 다다르더라도 종이책이 없어지지 않는다, 종이책은 종이책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요. 종이책은 적어도 그 역사가 3,000년이 넘는데 그 시간 동안 없어지지 않았어요. 분서갱유(焚書坑儒)를 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종이책은 계속 살아남았어요. 앞으로도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효율적이고도 경제적이고 소유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종이로 된 사전뿐만 아니라 책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해요.

윤구병 선생님과의 대화는 종이책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확신하며 마무리되었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종이사전은 더디고 변화 없는 도구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시대와 문화를 간직함으로써 오히려 무한한 연결과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도서출판 보리에서 펴낸 사전을 ‘펼쳐 보는’ 아이들이 탐색의 즐거움을 경험하기를 기대해 본다.



윤구병

197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하고 《뿌리깊은 나무》 초대 편집장을 역임했다. 보리 기획을 거쳐 보리출판사를 창립하여 시리즈로 『달팽이 과학동화』, 『개똥이 그림책』을 비롯해 『세밀화 도감』을 기획하고 펴내 어린이책의 새 지평을 열었으며, 남녘과 북녘의 학생들이 함께 보는 《보리 국어사전》과 《보리 국어 바로쓰기 사전》, 《보리 속담 사전》, 《보리 생태 사전》을 기획하고 감수했다. 저서로는 『잡초는 없다』, 『실험 학교 이야기』, 『있음과 없음』, 『철학을 다시 쓴다』, 『꿈꾸는 형이상학』, 『철학자가 본 우주의 역사』 등이 있다.



㈜도서출판 보리 편집부

어린이·청소년,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책을 두루 펴내어, 아이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과 더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앞으로도 우리 자연과 생태, 겨레의 말과 문화, 교육 현장의 실천과 공동체의 삶을 충실히 담아내고, 아이들과 교육을 살리는 책, 올바른 공동체를 세우는 데 길잡이가 되는 책을 꾸준히 펴내려고 한다.

우리는 같은 새를 보고 있다

글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수석연구원



2017년 8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진행한 산림 관련 회의에서 처음 북한 대표단을 만났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베트남과 중국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영어로 인사를 나누고 회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몇 차례 만남이 이어지고 회의 기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로 일상적인 이야기도 오가게 되었다. 가족, 출장, 건강 이야기처럼 특별할 것 없는 대화들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평범한 대화 속에서 남과 북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남편'을 부르는 표현이었다. 북한 참가자 한 분과 서로의 남편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는 '남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그는 '세대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순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국제회의에서 북한 대표단을 만나게 될 때면 서로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세대주' 안부도 함께 오갔다.

정보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남북 명칭 차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오랜 시간 서로 다른 사회와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조차 달라질 수 있구나! 돌이켜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남과 북은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사회제도에서 다른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다. 언어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같은 대상을 바라보더라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표현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사업회에서 발행하는 《겨레말》을 구독하고 있는 독자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차이는 일상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전문용어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나의 경우에는 환경 분야에서 일하면서 철새와 습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 다양한 새 이름을 접하게 된다. 그런데 남북한은 같은 새를 관찰하고 기록하면서도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평소에는 별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연구 자료를 비교하거나 공동 조사를 진행할 때는 생각보다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이 각각 조사한 자료를 비교할 때 같은 종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자료를 연결하는 과정부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장기 모니터링 자료를 통합할 때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름의 차이는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자료 관리와 연구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관련 자료를 공유할 때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름의 차이는 생물을 인식하는 방식의 차이

최근 북한은 철새와 습지 보전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의 중심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해마다 수많은 철새가 한반도를 경유해 이동한다. 서해안과 동해안의 습지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문덕, 신도, 강령, 금야, 라선(나선) 등 여러 지역에 철새보호구와 습지보호구를 지정하고 국가적인 철새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덕 철새보호구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인 람사르(Ramsar) 습지이자 EAAF 영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올해 초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도 등재되었다. 매년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문덕 철새보호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공개된 자료[1]를 보면 북한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는 동·서해안과 내륙 습지를 대상으로 겨울철과 봄철 철새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절별·연도별 철새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희귀하거나 위기에 처한 철새들이 북한 습지를 주요 서식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세계 철새의 날(World Migratory Bird Day)' 인식 증진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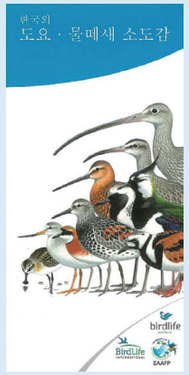
[표] 남북의 '세계 철새의 날' 공식 슬로건 비교[2]

연도	남한	북한
2020	세계를 이어주는 철새들	새들은 우리의 세계를 이어준다
2021	새처럼 날고, 노래하고, 비상하라!	새처럼 노래하고 날으며 솟아오르라
2022	새들의 밤을 위해 불을 꺼주세요	새들을 위해 밤에 불을 끕시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남과 북이 같은 철새를 조사하고 보호하고 있다면, 과연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까?'

1) 《조선중앙통신》 '주요철새보호구들에 대한 조사 진행', 2024년 5월 29일 ; 《내나라》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과학연구성과 달성', 2025년 9월 19일
2)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웹사이트(https://eaaflyway.org/world-migratory-bird-day/)



↑ 남한의 『도요·물떼새 소도감』



↑ 북한의 『도요류 소도감』

그래서 나는 북한에서 발간한 『도요류 소도감』[3]과 남한의 『도요·물떼새 소도감』[4]을 비교하여 도요·물떼새류 49종을 대상으로 남북한 명칭을 비교해 보았다.[5] 분석 결과는 예상보다 흥미로웠다.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종은 23종(46.9%)이었고,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종은 26종(53.1%)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종에서 명칭 차이가 확인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름만 다를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이름을 붙이는 방식 자체가 달랐다. 남한에서는 '꼬마물떼새', '흰목물떼새', '붉은가슴도요'처럼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외형적 특징을 이름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의 크기나 깃털 색깔, 몸의 특징을 중심으로 이름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반면 북한에서는 같은 계통의 새들을 하나의 범주 안에서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 '꼬마물떼새', '흰죽지꼬마물떼새', '흰목물떼새'로 구분하는 종들을 북한에서는 '알도요', '중알도요', '큰알도요'와 같이 하나의 명명 체계 안에서 배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같은 새를 보더라도 남북 간에 어떤 특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름의 차이는 생물을 인식하는 방식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서로 다른 철새 이름을 이해하는 일

물론 남북이 모든 종에 대해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알락꼬리마도요'와 '붉은어깨도요'처럼 남북이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종도 역시 절반 가까이 된다. 특히 '알락꼬리마도요'는 북한이 최근 철새보호사업 자료에서 주요 보호 대상 철새로 언급한 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처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한은 같은 철새를 관찰하면서도 서로 다른 언어 체계 속에서 이름을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처음 북한 참가자에게서 들었던 '세대주'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일지 모른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

3) 국토환경보호성, 『도요류 소도감』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9)
4) EAAFP and BirdLife Australia, 『한국의 도요·물떼새 소도감』 (인천: EAAFP, 2017)
5) 최현아, 『남북 물새류 전문용어의 구조적 비교 분석: 도요·물떼새류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026, 35(1): 307–326, http://doi.org/10.33728/ups.2026.35.1.011



↑ 2017년 4월에 나선(라선)에서 관찰된 꼬마물떼새(알도요) ©나일 무어스



↑ 2017년 4월에 나선(라선)에서 관찰된 알락꼬리마도요 ©나일 무어스

방식이 달랐던 것처럼, 같은 철새를 바라보면서도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이해하는지가 담겨 있는 문화적 산물이다. 생물 이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름 하나에도 사회와 학문 전통,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

철새는 국경을 알지 못한다. 한 마리의 새가 북한의 습지에서 쉬었다가 남한을 거쳐 중국과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이동한다. 따라서 철새 보전은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다. 앞으로 남북이 '따로, 또 같이' 수행하는 생태조사와 국제 협력이 확대된다면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작업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결국 같은 철새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러온 이유를 이해하는 일은 단순한 언어 연구를 넘어선다. 그것은 남과 북이 축적해 온 지식과 경험을 연결하는 작업이며, 더 나아가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함께 보전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2017년 몽골에서 처음 만났던 북한 참가자들과의 대화는 이제 오래전 일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 들었던 '세대주'라는 한마디는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같은 새를 보고 있다.'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에서 환경보전과 초국경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 통일부장관 표창, 2020년 강원도지사 표창,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후사경(後寫鏡)과 백미러(back mirror)

글 **김강출** 겨레말큰사전 책임편찬원



올 여름도 여느 해 여름처럼 몹시도 무더웠다. 그래도 입추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40도를 넘나들던 폭염도 그 기세가 조금씩 숙어 드는 듯하다. 곧 있으면 말복인데 말복이 지나면 이 극한 폭염도 한풀 더 꺾이지 않을까 한다.

말복 다음날은 광복절이다. 광복절이나 한글날에 즈음하면 필자도 남들 못지않게 갑자기 애국자가 된다. 적어도 이날만큼은 국어를 더 사랑하고 싶어지고, 한글을 더 애용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국어 사랑, 한글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그래서인지 필자가 어린 시절에 많이 쓰고 듣던 '다꽝, 다마네기, 벤또, 빠께쓰, 쓰메끼리, 쓰봉, 와이로, 우와기' 등과 같은 일본말은 지금은 국어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는데, '단무지, 양파, 도시락, 양동이, 손톱깎이, 바지, 뇌물, 윗도리' 등과 같은 바르고 고운 우리말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다.

쟁글리시와 재플리시

그런데 '노트북[1], 스킨십, 와이셔츠, 애드벌룬, 핸들,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소위 '쟁글리시(Janglish)' 또는 '재플리시(Japlish)'라고 하는 일본식 영어 단어는 위에서 든 몇몇의 일본말들과는 달리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며 여전히 쓰이고 있다. 이러한 생명력은 아마도 이들 단어가 모두 영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부감이 덜한 까닭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이를 대체할 마땅한 우리말이 아직은 없어서가 아닐까 한다.

1) 정식 명칭은 '노트북 컴퓨터(notebook computer), 랩톱 컴퓨터(laptop computer)'이다.

“ '노트북, 스킨십, 와이셔츠, 애드벌룬, 핸들,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소위 '쟁글리시(Janglish)' 또는 '재플리시(Japlish)'라고 하는 일본식 영어 단어는 위에서 든 몇몇의 일본말들과는 달리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며 여전히 쓰이고 있다. ”

ㄱ. 운전수가 **후사경으로** 영식을 힐끔거리며 대꾸하는데 그도 밉보았는지 말투가 툽상스럽다.《윤정모: 들》

ㄴ. 기형은 조수석 **후사경을** 통해 뒤쪽을 살펴보았으나, 울퉁불퉁한 바위들과 삐죽삐죽한 나무들뿐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최수철: 페스트》

ㄷ. 차안에 달린 **후사경을** 통해 얼핏 바라보니 털수건끝을 입에 물고있는 룡례의 두눈에 물기가 고이는듯했다.《북방의 눈보라》

ㄹ. 순간 **후사경에** 자기 차를 따르는 모터찌클이 보였다.《50년 여름》

위 ㄱ-ㄴ은 남한 문학 작품의 용례이고 ㄷ-ㄹ은 북한의 문학 작품의 용례인데 이들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후사경(後寫鏡)'은 무엇일까?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으나 정답은 백미러!

'후사경'은 한글학회에서 펴낸《조선말큰사전(1947~1957)》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말인데 이 말이 처음으로 올림말로 수록된 국어사전은 북한의《현대조선말사전(1981)》으로 보인다. 이 사전에서는 '후사경'을 "[명] (자동차 같은데서) 뒤를 비추어보게 되여있는 거울."로 풀이하고 있다. 남한에서는《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처음으로 올림말로 수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남한에서는 위의 ㄱ-ㄴ 용례에서 보듯이 1990년대 초 문학 작품에서도 확인된다.[2]

아무튼 '후사경'은 남한에서는 일상생활에서보다는 「자동차관리법」이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과 같은 법조문에 주로 쓰이는데 때론 이때의 '후사경'을 '간접시계장치'라는 용어로 바꾼 표현도 확인된다. '백미러'라는 쉬운 말을 두고 '후사경'이니 '간접시계장치'니 하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려운 말을 굳이 쓰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겠지만, '백미러'가 외래어이되 정식 영어가 아닌 재플리시라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

2) 물론 그 이전의 문헌에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이 말이 일본에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은 필자의 과제로 남겨 둔다.

백미러의 북한말은?

한편, 남한에서 널리 쓰이는 '백미러'는 북한에서 발간된 국어사전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북한에서 전혀 쓰지 않는 말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널리 쓰이는 말은 분명 아니다.

그러면 '후사경'과 '백미러'를 동의관계에 있는 말로 다룰 수 있을까?

필자가 알고 있는 '백미러'는 운전자가 뒤쪽을 살필 수 있게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에 다는 거울을 말한다. 그리고 차량에 부착하는 백미러는 다시 세 종류로 나뉘는데 먼저 차량 내부 앞쪽 중앙의 상단에 설치하는 '룸미러'가 있고, 차량 앞쪽 바깥 양옆에 하나씩 설치하는 '사이드미러'가 있으며, 승합차나 SUV 같은 차량의 뒤쪽 바깥 중앙의 상단에 설치하는 '트렁크백미러'가 있다. 그런데 요즘 웬만한 차량에는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서 승합차나 SUV 같은 차량에도 '트렁크백미러'를 설치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만약에 '후사경'과 '백미러'를 동의관계에 있는 말, 곧 동의어로 다루고자 한다면 우선 '후사경'에도 '백미러'처럼 세 종류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룸미러'에 대응하는 '후사경', '사이드미러'에 대응하는 '후사경', '트렁크백미러'에 대응하는 '후사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 둘을 동의관계로 다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백미러'는 '뒤쪽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려고 차량 같은 데에 다는 거울'이라는 통칭적 의미로서의 기본의미 외에 '사이드미러'와 구별하여 차량의 실내에 설치하는 거울이라는 뜻에서 특별히 '룸미러'라고도 한다. 사실 우리말에서 '백미러'라고 한다면 대개는 '사이드미러'와 상대되는 '룸미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도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뜻하는 말이 있을 것은 분명한데 필자는 아직까지 '후사경' 외에 북한 자료에서 '사이드미러'나 '룸미러'에 대응한 북한 어휘를 확인해 보지 못했다. 남북 대응어가 확인되는 대로 《겨레말큰사전》에 올림말로 싣고 남북한이 협의하여 뜻풀이를 확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외래어와 외국어

오래전부터 국내 일각에서 '백미러', '사이드미러', '룸미러', '드렁크백미러' 등을 모두 정식 영어 단어가 아닌 '쟁글리시' 또는 '재플리시'라고 하여 그 정식 명칭은 각각 'Rear-view mirror', 'Outside Rear-view Mirror', 'Rear Under Mirror'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종종 접한다. 사이비 영어 단어(?)인 쟁글리시를 청산하고 정식 영어를 쓰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필자 또한 쟁글리시의 사용에 대해 옹호한다거나 논박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외래어와 외국어는 구분했으면 한다. 외래어는 대응하는 표현이 자국어에 없어서 다른 나라에서 불가피하게 빌려다 쓰는 말이고, 외국어는 말 그대로 다른 나라의 말일 뿐이기 때문이다. '백미러', '룸미러', '사이드미러'를 대신할 수 있는 마땅한 우리말이 있다면 국어를 위하는 마음에서라도 당연히 이런 말들은 쓰지 않아야 옳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기에 여전히 불편한 것이다.

그러면, 끝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후사경, 백미러, 룸미러, 사이드미러'의 뜻풀이를 제시해 본다.

“북한에도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뜻하는 말이 있을 것은 분명한데 필자는 아직까지 '후사경' 외에 북한 자료에서 '사이드미러'나 '룸미러'에 대응한 북한 어휘를 확인해 보지 못했다. 남북 대응어가 확인되는 대로 《겨레말큰사전》에 올림말로 싣고 남북한이 협의하여 뜻풀이를 확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원어 앞에 '▼' 표시를 한 것은 이 말이 일본이나 우리나라 등에서 만든 영어라는 뜻이다. 국어

후사경(後寫鏡) [명]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에 달아서 운전자가 뒤쪽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한 거울. [같은말] 백미러(▼back mirror)①.

백미러(▼back mirror) [명]
① = 후사경(後寫鏡).
② 차량에 달아서 운전자가 뒤쪽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한 거울을 통털어 이르는 말. 룸미러, 사이드미러 등이 있다.
③ = 룸미러(▼room mirror).

룸미러(▼room mirror) [명]
차량의 뒤쪽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차량의 실내에 다는 거울. 흔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앞 유리창 상단 부근에 단다.
[같은말] 백미러(▼back mirror)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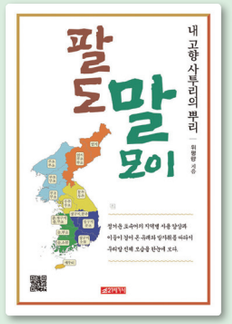
사이드미러(side mirror) [명]
차량의 뒤쪽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차량의 외부에 다는 거울. 흔히 운전석 바깥쪽에 한 개, 조수석 바깥쪽에 한 개를 단다.



김강출
겨레말큰사전 책임편찬원. 국민대학교 국어국문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편수원 및 개정 전문위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06년 사업회에 입사해 올림말부장, 연구기획팀장, 편찬실장, 남측 편찬위원 등을 지냈다.

방언, 우리말의 풍요로움을 더하다

글 **위평량**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특별연구원



↑『팔도 말모이』



↑『팔도 말모이 대화와 어법』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일제히 전국 군 단위, 또는 면 단위 면밀한 방언 조사를 진행하고 전국 방언지도를 완성하는 일, 우리말과 방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 보았을 간절한 소망일 것이다. 이와 같은 완벽한 언어지도가 완성될 수 있는 날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리고 분단된 지 8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겨레말큰사전》이라는 거대한 사업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머지않아 우리 앞에 곧 선보여 이 안타까움을 달래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부족했던 전국 단위 방언 연구와 이에 따른 전국 방언지도 제작 등의 작업도 이어지리라고 본다.

타 지역 사람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길

최근 많은 매체에서 한반도 각 지역의 여러 방언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음을 체감할 수 있다. 특히 영상 콘텐츠에서 고향이 다른 북향민들이 만나 서로 간의 언어와 풍속의 차이를 소개하고, 또 남한의 색다른 말을 사용하는 방언 화자들이 만나서 재미있게 구성한 패러디나 재미를 끄는 즉석 구성 영상 등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이러한 관심이 담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방영하는 일도 전국적으로 이질적인 다른 지역의 말과 문화에 좀 더 친숙해지고 또 다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필자도 이러한 분위기에 조금이라도 부응해 보고자 분에 넘치게 졸저 『**팔도 말모이(2022)**』(어휘편)와 『**팔도 말모이 대화와 어법(2025)**』이란 책을 펴내었다. 평소에 언어지도에 관심을 가지고 학위논문(전남, 경남 접경지역의 언어 연구)을 쓰고 또 남한의 군 단위 방언 조사 연구의 결과물인 『한국방언자료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1995)을 근거로 꾸준히 남한의 방언지도를 제작해 보면서, 혹시 한반도 전역의 방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일반인에게 개괄적인 남북한 전체 모습이라도 소개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렇게나마 얼개를 꾸려보고 싶었고 두 권의 책으로 선을 보였다. 물론 켜켜이 쌓인 선학분들의 연구와 조사자료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가 크고 책의 내용도 엉성하지만 그래도 한국인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지역별 전국 방언 분포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롭다.

필자는 그동안 방언을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이러한 작업이 누구라도 우리의 전통 방언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의 말에도 관심을 갖고 타 지역 사람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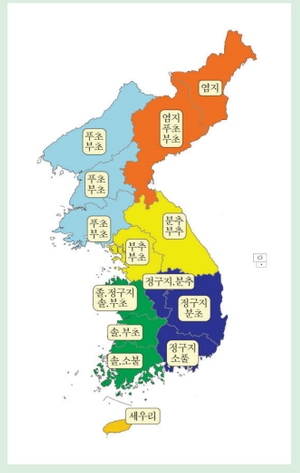
가령 만약 누군가가 '부추'에 대하여 어떤 지역의 말은 '솔'인데, 이 말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우리 지역과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고, 또 한반도 전체로 본다면 그 분포는 어떠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면, 아마 각 지역의 방언사전을 찾기도 할 것이고 지역별로 잘 정리된 자료를 펼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 확인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전공자가 아니라면 자료 접근도 쉽지 않을 것이다.

방언지도는 가독성과 전달의 용이함이 장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누군가에게 쉽게 방언 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해 왔다. 그러다 처음 엮어낸 책이 『팔도 말모이』였고, 내용 중 '부추'의 전국 방언지도를 그려 본 것이 [지도1]이다. 이와 같은 언어지도를 제작하여 보여주는 방식이 다양한 지역별 방언 자료를 한눈에 시각화하여 전달하기가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일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지역별 방언 자료를 다루어 왔음에도 실제 방언지도를 그려 놓고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무엇보다 각 방언형에 대한 분포 상황이 한눈에 선명하게 그려진 것을 보고 처음 의도한 출간의 의도가 결코 욕심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늘 익숙한 말이지만 지도를 통하여 필자 자신도 '솔'과 '정구지'라는 말은 우리나라 어떤 지역에 어떤 정도로 분포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으며,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북한에서 사용되는 말이 '염지', '푸초'였다는 사실도 뚜렷하게 알게 되었다.

이처럼 방언지도의 장점은 무엇보다 가독성과 전달의 용이함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 독자의 관심과 흥미가 더해진다면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 [지도1] 『팔도 말모이』(어휘편)에 소개된 '부추'의 전국 언어 지도

말이 지역마다 달라도 따뜻하게 소통할 준비가 필요하다

『팔도 말모이』(어휘편)를 쓰고 이에 더하여 미흡하지만, 누구라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각 지역별 높임법, 음운 현상, 그리고 형태와 통사 등에 관하여도 개략적인 언어지도를 그려보고 싶었다. 그래서 출간된 책이 『팔도 말모이 대화와 어법』이다.

예를 들어 다음 [지도2]를 통하여 각 지역별 '아주높임 의문형'의 대표형에 대하여 그 분포도를 보여주고, 이어지는 [표1]을 통하여 지역별 다양한 표현에 대하여도 소개를 하였다.

[표1] ~습니까: 아주높임 의문형 종결어미 전국 분포

중부방언	평안도	함경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습니까(꺼) -시껴(황해도)	-습네까 -습데까	-습니까, -슴까 -습지요, -습데까 -슴둥, -스꾸마(육진)	-소 -으시요 -습디까(껴) -라우	-십니꺼 -니이껴(경북 일부) -능교(경남북 일부)	-수까(과) -수꽝 -습네까



↑ [지도2] 『팔도 말모이 대화와 어법』에 소개된 "할아버지, 강아지 왜 파셨습니까?"(아주높임 의문형)

서울, 경기 지역 이외의 다양한 표현들이 표준어가 아니라고 해서 결코 우스꽝스럽거나 수준이 낮은 말이 아니며 표준어가 우수하고 격이 높은 말이 아니라는 것쯤은 토속방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다음은 "할아버지, 강아지 왜 파셨습니까?(표준어)"에 대한 지역별 발화 모습이다.

"클아바이, 개애지 왜 폴았슴둥/폴았슴까?"(함경도)
"하나부지, 개애지 왜 팔았시껴?"(황해도)
"할아버지, 강아지 왜 팔았습니꺼?"(강원도)
"할배요, 강생이 와 팔았능교/팔았니껴?"(경상도)
"하르버지, 강생이 무사 폴앗수꽈?"(제주도)
"클아버지, 가이새끼 왜 팔았습네까?"(평안도)
"할아버지, 강아지 왜 파셨습니까?"(경기도)
"하라부지, 강아지 왜 팔았시유?"(충청도)
"하나부지, 갱아지 왜 폴았능게라우?"(전라도)

위의 말 중에서 어느 말이 가장 바람직하고 품위 있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표준어가 될 자격이 있는 좋은 말일까? '~파셨습니까?'는 서울에서 쓰기 때문에 대표성을 띤 말일 뿐이다. 나머지 모든 지역의 말도 다 소중하고 등한시해서는 안 될 소중한 말인 것이다.

이처럼 모든 자기 지역의 말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방언화자 누구에게나 가장 정겹고 친숙한 말일 것이다. 반면에 처음 듣는 말은 어색하고 때론 거북하기까지 느껴질 수도 있다. 이제라도 더욱 전국적인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시대에 들어 어휘나 억양, 말투가 다른 지역 사람들과 교류할 때 서로 오해함이 없이 따뜻하게 소통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우리말의 풍요로움을 더해 주는 팔도 말모이

이 책은 이러한 방향에 대한 작은 꿈틀거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부족하나마 쉽게 우리 방언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도를 한 무모할 만한 용기가 조심스러울 뿐이지만, 머지않아 더 완벽하고 풍부한 해설을 곁들인 진정한 남북한 언어지도가 나오게 될 것이기에 그렇게 조심스럽지만은 않다. 특히 이제 곧 선보이게 될 역사적 과업인 《겨레말큰사전》은 이러한 염원에 대한 기폭제가 되리라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위의 두 책을 제작하고 지도를 그리는 데 필요한 자료는 지금까지 선학분들이 조사, 연구해 놓은 수많은 역저에 의지하며 나름의 가장 객관적인 통계 지표를 활용하였다. 또 실제 남북한의 자료가 상당한 시대 차가 존재하는데, 대체로 남한은 1980년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고, 북한은 대체로 1945년 분단 이전의 학자들이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 자료를 기초로 확인을 거듭하였고 북한 지역의 누락된 부분은 북향민들과의 꾸준한 만남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지도의 정확성이나 해설의 오류 등 그 모든 부족함의 책임은 온전히 필자에게 있다.

아울러 선조들의 전통적 삶의 정신과 정서를 담고 있는 각 지역의 말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도 소멸되지 않도록, 그리하여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본다.



위평량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특별연구원.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방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겨레말큰사전》에 수록될 전라남도 지역어를 수집했다. 현재 호남학연구원에서 방언 관련 저서를 꾸준히 펴내고 있으며, 현장의 살아 있는 용례가 실린 방언사전을 만들기 위해 방언 조사를 다니고 있다. 『전라도 말의 뿌리』, 『팔도 말모이』, 『사라져가는 전라도 말의 뿌리』, 『팔도 말모이 대화와 어법』, 『말의 자리』(공저), 『남도 음식의 언어와 문화』(공저) 등을 썼다.

‘사과배’를 다시 바라보다

글 **한성우**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옥을 닮은 수수

“그 먼 길을 어이 가겠슴둥. 옥시 철에 꼭 다시 오오.”

1997년 여름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 북흥마을의 아바이와 아매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을 남겼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녘땅 회령시와 마주한 이 마을, 갈 수만 있다면 두만강을 건너 열차를 타고 한나절 만에 서울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연길까지 버스로, 다시 연길에서 심양까지 국내선, 심양에서 서울까지 국제선 비행기로 가야 하니 이틀이 걸리는 여정이다. 과연 이 먼 길을 다시 가서 옥수수를 먹을 수 있을까? 30년이 되도록 그 마을에 가지 못했다.

그런데 왜 하필 옥시를 먹으러 오라는 걸까? 요즘에는 옥수수가 주전부리이거나 가끔 별미로 먹을 음식이지만 먹을 것이 귀하던 과거에는 달랐다. 안데스 산지의 주민들에게 옥수수는 이 지역의 토양과 기후 조건에 가장 잘 맞게 하늘에서 내려준 곡식이었다. 그러나 연변 지역에 자리 잡은 우리 교포들에겐 달랐다. 쌀의 민족에게는 쌀 이외의 곡식은 모두 잡곡이니 옥수수는 쌀이 없어 대신 먹는 작물에 불과하다. 그래도 가을의 추수까지 아직 먼 시기에 옥수수는 배를 불릴 수 있는 고마운 작물이다. 그것이라도 후히 대접하겠다는 약속이니 그것이 인사말로 굳어진 것이다.

함경도에서는 ‘옥시’라고 하는 것을 한반도의 중부 지역에서는 ‘옥수수’라고 하니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가 받아들인 이름은 중국에서의 이름 ‘옥촉서(玉蜀黍)’와 ‘옥미(玉米)’가 경쟁한 결과이다. 탱글탱글 반짝이는 알곡이 마치 옥처럼 보인대서 ‘옥(玉)’을 붙이는 것은 두 말 모두 같다. 그러나 쌀의 민족이 쌀 아닌 것을 쌀로 부를 수 없으니 우리의 선택은 ‘촉서’와 대응하는 ‘수수’일 수밖에 없다. 수수는 ‘수끼’와 ‘수시’로도 나타나니 옥시는 물론 이와 유사한 방언형이 모두 이해된다.





그런데 이것이 한반도의 남부에서는 ‘강냉이’ 계열로 나타난다. 중부 지역 사람들에게 강냉이는 옥수수에 고온과 고압을 가해 뻥튀기로 튀겨 낸 것을 가리키기도 하니 펄쩍 뛸 만하다. 그러나 이 작물이 중국의 남방에서 들어오다 보니 남쪽에서는 강남에서 들어왔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강냉이라 부른다고 본다. 한반도의 남쪽은 기후나 토양 모두 좋은 편이니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강냉이 철에 다시 오라는 인사말은 없다.

자두와 돼지

“자두를 왜지라고 하는데 왜지?”

1990년대 끝자락의 여름은 굳이 옥시 철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만큼 먹을 것이 풍부했는데 새콤달콤한 자두도 그중의 하나였다. 방언 조사를 멈추고 잠시 쉬는 틈에 아매가 바가지 가득 들고 온 것은 틀림없는 자두인데 이미 제보자로서 잘 훈련된 아매는 그것의 이름이 ‘왜지’라고 알려 주신다. 왜지? 이전에 조사한 적도 없고 자료집에서 본 적도 없어 꽤 낯설다.

자두는 억울하다. 색깔 때문에 자줏빛 복숭아란 의미의 ‘자도(紫桃)’였다가 그마저도 발음이 바뀌어 자두가 되었다. 그래도 우리말에선 복숭아의 아류 취급을 하지 않고 따로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오얏’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매우 흔한 성씨인 ‘李’가 천자문에는 ‘오얏 리’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오얏이다. 성씨로는 흔하지만 이 한자가 본래의 뜻으로 쓰는 것은 잘 안 보이고 다만 오해를 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은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에서 보인다.

이 ‘오얏’과 ‘왜지’의 거리는 꽤 멀어 보인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돼지가 그 사이를 메워준다. 돼지는 본래 ‘돝’이었다. 방언을 뒤져보면 ‘도투’가 나오고 씨돼지를 ‘씨돝’이라고 하기도 하니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돝’에서 끝소리가 탈락하고 새끼를 뜻하는 ‘아지’가 붙으면 ‘도야지’가 된다. ‘오얏’의 15세기 어형은 ‘오얒’이니 ‘도야지’가 ‘돼지’가 되는 과정에서 밟은 길을 ‘오얒’도 비슷하게 밟아 ‘왜지’가 된 것이다.

자두의 방언형은 ‘고약, 귀타리, 꽤기, 놀, 농구, 시우리, 애기, 추리, 풍개, 홍글래, 머지’ 등 매우 다양하다. 산과 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과일이니 지역마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그래도 이것을 대표하는 것은 역시 ‘오얏’인데 이마저도 1988년 이후에는 옛말의 흔적일 뿐 현대 국어의 어휘로는 쓰이지 않으므로 고어로 처리한다고 못 박고 있다. 각지의 수많은 방언형을 비표준어로 보는 것도 모자라 ‘오얏’을 고어로만 보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기티디 말라요

"기티디 말라요. 썅저래 맛 둥아요. 다 드시라요."

2003년 겨울 압록강변 단둥, 조사를 잠시 쉴 때마다 먹을 것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의주 출신 클마니도 다를 바가 없었다. 한겨울인데 노란색의 길쭉하게 꼬부라진 과일을 내오신다. 그런데 클마니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썅저'와 '기티다'가 계속 귀를 종긋하게 한다. 눈앞에 실물이 있으니 썅저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도무지 그 말의 연원을 알 수가 없다. 맥락을 통해 '기티다'의 쓰임은 알겠는데 이 말 역시 낯설기만 하다.

"썅저 헌 호츠." 썅저의 비밀은 클마니의 이 짧은 중국어 한마디로 풀렸다. 중국어로 바나나를 가리키는 샹자오(香蕉 xiangjiao)였던 것이다. 클마니가 의주 땅을 떠날 무렵에는 바나나를 몰랐다. 중국에 자리를 잡은 클마니는 노년에 중국의 남방에서 온 바나나를 접했다. 그것을 가리키는 우리말이 없으니 클마니는 자연스럽게 중국어 단어를 빌려 쓴 것이다. '땐쓰, 뗀노, 삥샹'도 마찬가지다. 텔레비전과 컴퓨터, 그리고 냉장고도 과거에는 없었으니 '电视(dianshi), 电脑(diannao), 冰箱(bingxiang)'을 중국어 그대로 쓰는 것이다.

우리말에 없으니 중국어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끼치다'가 '기티다' 풀이의 열쇠가 된다. 구개음화를 감안하면 '기티다'는 '기치다'이고 어두경음화까지 일어나면 '끼치다'이다. 표준어에서는 이렇게 바뀌어 '영향을 끼치다'나 '소름이 끼치다' 정도에만 남아 있는데 의주 말에는 여전히 '남기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던 것이다. 생각해 보니 문을 잠그지 말고 조금 열어 두라는 의미의 '문을 지쳐 두다'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기는 하다. 'ㄱ'과 'ㅌ' 모두 구개음화를 겪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옛말의 생명력에 소름이 끼쳤으니 썅저는 기티디 말고 다 먹어야 했다.



사과배, 그리고 '뚱리'

"도사님, 핑궈리 드셔 봅소. 용정의 특산물입니다."

2024년, 옥시 철은 놓쳤지만 한겨울에 연변 일대를 돌아볼 기회를 얻었다. 연길 서시장을 방문하니 옛 제자가 낯선 과일 하나를 권한다. 핑궈리? 틀림없이 '평과리(苹果梨)'일 텐데 그렇다면 '사과배'다. 겉모습 또한 그러해서 사과와 배의 모양과 색이 같이 보이고 껍질의 질감도 사과와 배를 섞어 놓은 듯하다. 한 입 베어 물어 보니 사과의 향이 약간 도는데 배를 씹는 느낌이다. 말 그대로 사과와 배가 묘하게 섞인 듯한 과일이다.

조율이시(棗栗梨柿). 과거 우리의 제사상에 오르는 과일은 이러한데 빠진 것이 하나 있다. 요즘에는 흔히 올리는 핑궈(苹果), 즉 사과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있어야 할 1음절의 한자 대신 '苹果'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는 한국과 중국 모두 사과가 없었던 것일까? 지금의 사과와 비슷한 능금이 있었고 중국에도 1음절 한자 '柰(능금 내)'가 있었지만 조상들이 기티디 않았으니 사과와 '苹果'가 더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과가 용정의 조선족 농부에 의해서 묘한 새 생명을 얻었다. 함경남도 북청의 참배나무를 연변의 돌배나무에 접목하니 사과를 닮은 배가 탄생한 것이다. 이들은 이것을 '사과배'라 부르며 자신들의 뿌리와 현재의 삶을 투영한다. 이름처럼 사과와 배가 합쳐진 것으로 봐도 한반도에서 떠난 이들이 중국 땅에 자리를 잡은 자신들의 삶과 겹친다. 둘 다 배이지만 접목을 하니 사과의 색과 향이 나는 것으로 봐도 중국 땅에 접목돼서도 고유의 색을 유지하는 조선족의 모습과 유사하다.

사과배가 겨울 추위에 얼면 '뚱리'가 된다. 중국어로는 '冻梨(dongli)'라고 하니 '언 배' 또는 '동리'라고 해야 하겠지만 이들은 중국어 발음이 들리는 대로 받아 '뚱리'라고 부른다. 추위에 껍질은 새카맣게 변하지만 맛은 더 달아진다. 이 뚱리가 연변 지역의 동포와 이 지역 겨레말의 미래와 닮았다. 조선족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젊은 세대의 말 또한 급격히 중국어로 대체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넘어온 참배나무의 맛, 향, 색이 퇴색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이들의 삶의 흔적과 말은 뚱리로 남을 것이다. 추울수록 맛이 더 달아지면서.



한성우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 국어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립국어원 국어규범위원회 위원, 한국방언학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평안북도 의주방언의 음운론』, 『인천 토박이말 연구』, 『우리 음식의 언어』, 『문화어 수업』, 『말과 글의 풍경』 등이 있다.

2026 겨레말 소식

사업회 제4대 이사장에 안병우 한신대학교 명예교수 취임



지난 5월 7일 통일부는 사업회 제4대 이사장에 안병우 한신대학교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이날 사업회 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안병우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중대한 사업에 함께하게 돼 영광인 동시에 큰 책임을 느낀다며, 지난 20년 동안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사전 편찬에 진력한 임직원과 전임 이사장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남북 교류가 중단돼 사업의 결정적 진전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국어학사와 민족사에 오래 남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며 과업을 완성해 가자고 강조했다.

안병우 이사장은 제1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위원장, 덕성학원 제14대 이사장, 제19대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재임했다.

한편, 지난 9월 4일 안병우 이사장은 제8기 이사 9명을 선임하며 이사회를 구성했다. 제8기 이사에는 강윤희(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김정환(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겸임교수), 박덕종(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신종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이계안(평택대학교 피어선기념학원 이사장), 이관규(국립국어원 원장), 이해영(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교수), 장완익(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정일영(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상, 가나다순)이 선임되었다. 제8기 이사진의 임기는 2028년 4월 26일까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및 통일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페스타 홍보 부스 참가



사업회는 지난 9월 2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홍보 부스에 참가했다. 미주지역 24개국 8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행사에서 사업회는 회의장 로비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국외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힘쓰는 자문위원들을 만났다. 현장에서는 《겨레말큰사전》 가제본과 《미리 만나는 겨레말 작은사전》 실물을 전시하고 '남녘말 북녘말' 앱 설치 및 겨레말 굿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9월 14일에는 통일부 '2026 평화바람주간'을 맞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페스타' 홍보 부스에 참가했다. 통일부, 국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연구원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사업회는 국민에게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홍보하고, 남북 교류 협력의 대표적인 문화·학술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앞으로도 사업회는 통일 및 남북 교류 관련 기관들과 연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교류 협력의 뜻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 전자책 발행



사업회는 지난 10월 한글주간에 한글날 제정 100주년, 주시경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 2023년 6월에 펴낸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아래 '《겨레말작은사전》')의 자료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책을 발행해 배포했다.

《겨레말작은사전》은 북측의 일상생활 용어와 교과서 용어, 기초 전문용어, 관용구와 속담 등 3,053개 올림말을 수록한 소사전으로, 통일 미래세대가 남북 언어를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편찬됐다. 기존 종이사전은 소량 제작돼 통일 관련 유관기관과 공공도서관에 배포됐는데, 이번 《겨레말작은사전》 전자책 발행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사전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남북 언어 정보를 찾는 국민적 수요를 해소했다.

더불어 사업회는 《겨레말작은사전》 전자책 발간 소식과 이용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11월 27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겨레말작은사전》 전자책 발간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겨레말작은사전》 전자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겨레말 톡톡 토크쇼, 겨레말 퀴즈, 전시 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대학생들과 함께 《겨레말작은사전》 활용·확산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 현장은 12월 중 사업회 공식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몽골국립대학 국제학술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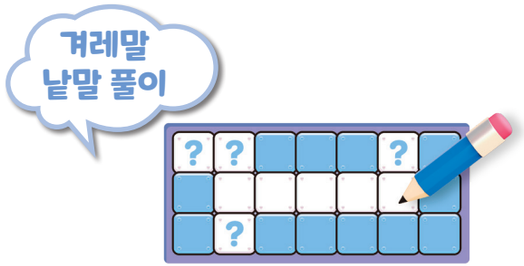
사업회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몽골국립대학교에서 겨레말큰사전·몽골국립대학 국제학술포럼 〈갈라진 언어, 이어지는 숨결〉(아래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사업회 안병우 이사장의 개회사와 바얀자르갈린 오치르호약 몽골국립대학 총장의 환영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즈조빈 알다르자브흘랑 몽골 문화체육관광청년부 장관, 자야바타르 국제몽골학회 사무총장의 축사로 막을 연다.

1일차에는 '분단 언어 차이와 통합'을 주제로 남북 언어 통합과 겨레말큰사전, 몽골어의 세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권재일 한글학회 이사장이 '《겨레말큰사전》의 성격과 그 성과'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친다.

이어 2일차에는 '경계를 넘는 언어와 문학'을 주제로 해외 동포·몽골에서의 디아스포라 문학을 깊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몽골 디아스포라 문학은 곤치긴 바트소리 몽골국립교육대학교 교수가, 해외동포 디아스포라 문학은 고명철 광운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몽골은 내몽골(중국족)과 외몽골(몽골국), 해외 이주 몽골인이 겪는 언어적 갈등과 정체성 변화를 문학 작품을 통해 조명하고, 한국은 분단으로 인해 고향을 떠난 실향민, 재외 동포 등에 관한 문학 작품을 통해 언어적 이질감과 한반도 디아스포라의 삶을 조명한다.

사업회는 남북 모두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몽골에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측편찬위원회와의 접점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사업회는 몽골국립대학, 몽골과학원 어문학연구소 등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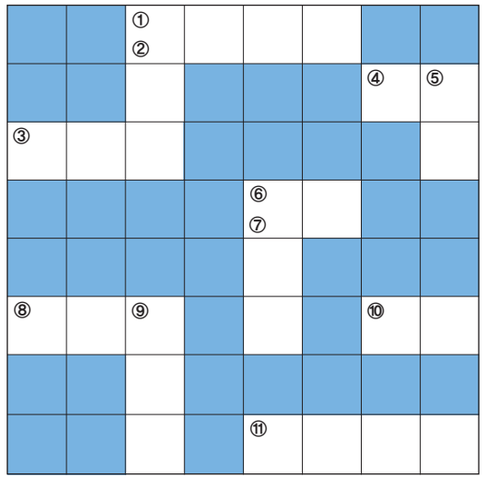
이번 포럼의 현장 영상은 폐막 후 사업회의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사업회에서 만든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언어〉 검색 페이지와 〈남녘말 북녘말〉 앱에서 더 많은 남북 언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언어〉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언어: http://dic.gyeoremal.or.kr

〈남녘말 북녘말〉
앱: 안드로이드 및 IOS 앱 스토어에서 '남녘말' 또는 '북녘말' 검색



① 북녘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남녘의 '워터파크'에 해당하는 곳을 이르는 말. 대표적으로 평양의 만경대, 릉라, 문수 ○○○○이 있다.
예) 봄부터 얼음이 얼기전까지 {○○○○에} 항상 깨끗한 물이 있게 제때에 갈아 주어야 한다.《사향쥐》(북)

②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하는 문장 유형. 남녘에서는 '의문문'이라고 한다.
예) {○○○은} 그 기능과 내용에 따라 대답을 반드시 요구하는 {○○○과} 요구하지 않는 {○○○으로} 갈라진다.《○○○의 높낮이선구조에 대하여》(북)

③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 유형. 남녘에서는 '명령문'이라고 한다.
예) '해결해 보십시오'의 {○○○을} '해결해 보시겠습니까'의 물음문으로 바꾸면 존경하고 겸손한 태도가 엿보여서 같은 내용도 듣기 좋다.《늘 쓰는 말을 겸손하고 례절 있게 하자면》(북)

④ 색이름 중 풀의 빛깔과 같은 진한 연두색을 이르는 말. 북녘에서 청신호인 '초록불', '파란불'을 가리킬 때 이 색이름을 쓴다.
예) {○○} 신호등이 켜졌을 때에는 교통안전원의 뒤에 있는 건늠길로만 건너가야 하며….《누구나 알아야할 도덕》(북)

⑤ '색깔'의 북녘 표기. 남녘에서는 접미사 '-깔'을 소리나는 대로 적기 때문에 남북 표기에 차이가 난다.
예) 널직한 마당주변에는…송이가 크고 {○○이} 진한 꽃들로 꽉 찼다.《진실한 울림》(북)

⑥ 북녘에서 말이 우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남녘에서 '히힝'이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예) 가라말이 녀인쪽으로 돌아서며 {○○—} 하고 울었다.《천균노》(북)

⑦ 잘거나 작은 것들이 한곳에 많이 모여있거나 동시에 덤비는 모양을 나타내는 북녘말.
예) 열이 오른 학급애들이 {○○○} 떠들며 모여들었다.《탄부모자》(북)

⑧ 컴퓨터 키보드 자판에서 글자 사이를 띄울 때 쓰는 긴 막대 모양의 키 '스페이스 바'를 북녘에서 이르는 말. 2017년 《조선말대사전》에 처음 수록되었다.

⑨ 횡단보도나 건널목을 뜻하는 북녘말로 '철길이나 큰길을 가로질러 건너게 된 길'을 뜻하는 단어이다.
예) 그들은 경쾌한 걸음으로 {○○○을} 지나 걸음길에 들어섰다.《벽계수》(북)

⑩ '손뼉'의 북녘 표기. 발음은 '[손뼉]'으로 같지만 표기법의 차이에 따라 남북이 다르게 표기하는 단어이다.
예) 셋은 짜락짜락 {○○을} 쳤습니다.《청서가 받은 밤알》(북)

⑪ 외래어 '키워드(keyword)'의 북녘말. 북녘에서는 외래어를 고유어 또는 한자어로 다듬어 쓰는 예가 많다.
예) {○○○○에} 의한 검색으로 찾아낸 주소.

정답

①물놀이장	②물음문	③시킴문	④풀색
⑤색갈	⑥오흥	⑦오구구	⑧공백건
⑨건늠길	⑩손벽	⑪열쇠단어	

2026년
함께 만드는《겨레말》

2026년 겨레말 가을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독자 퀴즈의 정답과 의견을 작성하여 보내주신 분 가운데
총 다섯 분을 선정하여 온라인 상품권(3만 원 상당)을 드립니다.

독자 참여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각각 무엇일까요?
2026년은 주시경 선생 탄생 ○○○돌,
한글날 제정 ○○○돌을 맞는 해이다.

단서! 3쪽 〈겨레의 창〉에 정답이 숨어 있어요!

이번 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꼭지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여 방법

보내실 곳: gyeoremal@gyeoremal.or.kr
참여 기한: 2026년 10월 31일까지

※ 당첨자에게는 응모한 연락처로 개별 연락드리며 채택된 독자 의견 중 일부는 다음 호에 실립니다.

겨레말 독자 이벤트♥

2026년 봄호 퀴즈 정답 & 독자 의견

북한의 《로동신문》에서 자주 쓰이는 북녘말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칭찬에는 '○○', 비난에는 '○○'이 쓰인다.

정답: 칭찬에는 '꽝꽝', 비난에는 '망탕'이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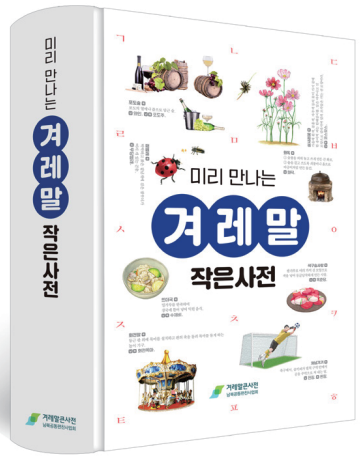
[겨레의 창] 다원성을 인정하는 국어정책이 남북 언어 통합 정책의 출발점
이 글을 읽으면서 통일 시대의 언어 정책은 단순히 맞춤법이나 어휘를 통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 현실을 존중하는 과정이라는 걸 느꼈어요.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책은 결국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문화적 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_안○준

[겨레말 초대석] 김명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장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박물관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문자를 과거의 유산으로만 가두지 않고 '세상에 없던 놀라운 박물관'으로 확장해 나가는 관장님의 철학이 신선했고, 《겨레말큰사전》의 미완성 상태를 가능성으로 바라봐 주시는 따뜻한 응원의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_김○규

[기획특집-칼럼 1] 《겨레말큰사전》을 하루라도 빨리 발간하면 좋은 이유
서경식 작가님의 "언어는 자격이 아니라 도구다"라는 문장이 유독 마음속에 남네요. 재일동포들이 일본어를 모어로 사용하면서도 우리말을 배우려는 이유가 단순히 '한민족의 자격'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라는 관점이 참 따뜻하고도 날카로웠습니다. 분단과 냉전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억지로 갈라진 우리말을 다시 잇는 작업이 왜 시급한지, 그리고 그것이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_정○석

[기획특집-칼럼 2] 《겨레말큰사전》, 남북 언어의 역사적 통합
김재용 편찬위원님의 글을 통해 《겨레말큰사전》이 단순히 남북의 단어를 합치는 것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일제강점기 형성된 서울 중심의 표준어 개념 때문에 많은 토박이말이 소외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함경도나 평안도 지역어를 복원하려 했던 예술가들의 노력이 오늘날 사전 편찬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_이○아

[남녘말 북녘말] 《로동신문》에 등장하는 북녘말들
언론 매체라는 거울을 통해 남북의 문화적 괴리와 장벽을 언어학적으로 다룬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차단'은 호기심을 부르지만 '해제'는 직시를 통한 해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장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마지막에 남북 기자들의 일화 속 '사람 사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고 한 부분은 찡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_이○름



미리 만나는

겨레말 작은사전

친절한 남북 언어문화 길잡이
남북 어휘 3,053개 수록

이제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을
전자책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 전자책 이용 방법 안내

❶ 온라인 서점 접속	❷ '겨레말작은사전' 검색	❸ 전자책 내려받기	❹ 전자책 이용하기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겨레말작은사전'	e-book 다운	내 서재에서 읽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